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2 년 8 월  
석사학위 논문

중국 차 문화의 발전과  
사회적 영향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아 시 아 학 과

하 인 영

# 중국 차 문화의 발전과 사회적 영향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Social Impact  
of Chinese Tea Culture

2022 년 8 월 26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아 시 아 학 과

하 인 영

# 중국 차 문화의 발전과 사회적 영향 연구

지도교수 한종완

이 논문을 아시아학 석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아 시 아 학 과

하 인 영

# 하인영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금순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상우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한종완 (인)

2022 년 5 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영문 초록 .....	
<b>제 1 장 서론 .....</b>	<b>1</b>
제 1 절 연구 목적 .....	1
제 2 절 선행연구 .....	3
제 3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7
<b>제 2 장 중국 차 문화의 정의와 기원 .....</b>	<b>10</b>
제 1 절 중국 차 문화의 정의 .....	10
1. 차의 정의 .....	10
2. 차 문화의 정의 .....	12
제 2 절 중국 차 문화의 기원 .....	14
1. 차 문화의 기원 .....	14
2. 차 문화의 시기 구분 .....	18
<b>제 3 장 중국 차 문화의 역사적 변천 .....</b>	<b>20</b>
제 1 절 차 문화 태동기 .....	21
1. 선진(先秦)시기의 차 문화 .....	21
2. 진(秦)·한대(漢代)의 차 문화 .....	22
제 2 절 차 문화 형성 및 발전기 .....	24

1.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시대의 차 문화 .....	25
2. 당대(唐代)의 차 문화 .....	28
제 3 절 차 문화 번영기 .....	30
1. 송대(宋代)의 차 문화 .....	30
2. 요(遼)·금(金)의 차 문화 .....	33
제 4 절 차 문화 변화기 .....	34
1. 원대(元代)의 차 문화 .....	34
2. 명대(明代)의 차 문화 .....	37
3. 청대(清代)의 차 문화 .....	40
제 5 절 차 산업 부흥기 .....	43
1. 중국의 개혁개방과 차 산업 .....	43
2. 현대 중국의 차 산업 .....	45
<b>제 4 장 중국 차 문화의 기능과 경제 · 사회적 영향 .....</b>	<b>48</b>
제 1 절 차 문화의 기능 .....	48
1. 문화적 기능 .....	48
2. 교육적 기능 .....	49
3. 심미적 기능 .....	49
4. 실용적 기능 .....	50
제 2 절 차 문화의 경제적 영향 .....	52
1. 차 산업의 발전 .....	52
2. 차 문화 관광 .....	55
3. 의약보건과 컨벤션 산업 .....	56

제 3 절 차 문화의 사회적 영향 .....	59
1. 전통문화와 인문학적 소양 .....	59
2. 차 문화와 교제 활동 .....	61
3. 차 문화와 인생의 시화(詩化) .....	63
4. 차와 대외 교류 .....	64
제 5 장 결론 .....	66
참고문헌 .....	68



## 표 목 차

<표 1> 문학 작품에 나타난 차의 별칭 .....	12
<표 2> 중국 차 문화의 시기 구분 .....	18
<표 3> 중국 성도별 차집 통계표 .....	54
<도표 1> 2016-2020 년 중국 차 생산량 .....	46
<도표 2> 2020 년 중국 차 종별 생산량 분포 .....	46
<도표 3> 2016-2020 년 중국 차의 소비량 .....	47

## ABSTRACT

###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Social Impact of Chinese Tea Culture

Ha Yin Young

Advisor : Prof. Han Jong Wan Ph.D.

Department of of Asian Languages and cul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func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 of Chinese tea culture and its social influence. Tea culture is a branch of traditional Chinese culture, and its formation and development have been brilliant through a long historical process and have been in decline. However, today, China's tea culture is emerging again in an atmosphere that promotes traditional culture.

This study analyzes how tea culture flourished and developed socially through the development process of tea culture, explaining the social role of tea culture and its path to fulfill its mission, and predicts the development of tea culture in the globalization and diversified culture of the economy.

This paper is thus developed in several parts.

First, the general form and function of culture are briefly introduced in the introduction, and the basic mental characteristics and modern values of Chinese traditional culture are discussed. In other words, we argue that the modern value of Chinese traditional culture should be realized in the following three aspects. First, cultural confidence can be instilled against the invasion of western culture. Second, it is the starting point for the modernization of national culture. Third,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construction of spiritual civilization in modern society. In addition, the implications and forms of Chinese tea culture, including the definition, system, personality, and characteristics of tea culture, are discuss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tea culture is divided into embryonic period, formative and development period, prosperity period, change period, revival period, and the causes, expression forms, and roles of tea culture development in stages are examined. In addition, the function of tea culture and the role and influence of tea culture on modern economic society are analyzed.

Based on these studi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economic impact of tea culture, the development of tea industry, tourism of tea culture, medical health, and the social impact of the convention industry and tea culture are expanded and reviewed.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연구 목적

차(茶)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하는 수단이다. 특히 중국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차는 고래(古來)로부터 개문칠건사(開門七件事)라고 할 정도로 모든 가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이었다. 심지어 각자 개인의 찻잔이나 차병을 지니고 다니면서 차를 즐겨 마시는 문화가 낫설어 보이지 않는데 이 또한 그들의 문화적 전통과 관련이 있다고 사료 된다.

차의 약성(藥性)과 식성(食性)은 심신의 건강을 유지해주는 성질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사람들에게 음용되면서 문화적 함의를 담게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전통 문화사상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차는 현대에 이르러 갈증을 해소해 주는 단순한 음료에서 벗어나 고도의 정신문명을 추구하려는 행위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차가 널리 유행하게 되었고, 차 산업도 빠르게 성장했다. 차 문화의 발전은 음식문화의 품위를 높일 뿐 아니라, 사회 각 계층의 특색 있는 제도, 도덕, 윤리, 풍속, 예절, 마음을 예절 등 상대적으로 규범화된 차 문화를 형성하고 나아가 사람들의 사회적 교류 문화를 발전시켜 주는 그야말로 우리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화는 인간 발전의 내재적 필요이자 인간 자신의 발전을 나타내는 척도이며, 어느 시대의 문화든 항상 그 시대의 정신을 대표하고 인류의 발전 목표와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과학 기술혁신, 정보혁신, 지식경제가 왕성했던 시대에 물질경제의 발전은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편안함을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자원의 과잉 이용, 인류의 생존환경이 날로 악화하는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단순한 경제 발전을 근본 목적으로 삼았던 과거의 관념을 바꾸고 경제, 사회, 인류,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지속시켜야 할 것이다.

차는 다도, 다례 등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궁중 의례, 종교 의례, 가례 등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음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술을 위주로 하던 각종 의례에서 술을 대신하면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고, 차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시도되면서 연구 분야에 있어서도 차 문화라는 영역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지난 세기 80년대부터 중국에서도 급속한 문화의 봄이 일어났다. 1982년 상하이에서는 건국 이래 처음으로 중국 문화사 연구 심포지엄이 개최된 후로 베이징, 선전, 후베이, 항저우 등지에서는 중국 문화사 연구, 중국과 서양의 문화 비교연구, 중국 전통문화 및 현대화 관계학술 토론회나 강습반이 여러 차례 열렸다. 또 베이징, 시안, 우한, 광저우 등지에 다양한 형식의 문화 연구 조직이 만들어졌고, 문화보, 광명일보가 중국 전통문화에 관한 토론 칼럼을 잇달아 개설했다. 저명한 학자 자춘핑(賈春峰)은 ‘문화력’이란 용어를 중국에서 가장 먼저 제시함으로써 사회 경제 발전에서 문화의 영향력을 강조했다.<sup>1)</sup>

본고는 중국 차 문화의 발전 형성사에 대한 고찰과 현대사회의 차 문화 발전에 대한 조사를 문헌을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때 기본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첫째, 차 문화가 전통문화의 구성 요소로서,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재현되어 융성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다.

둘째, 차 문화가 현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과 방법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경제 세계화와 세계 다문화 융합 과정 중, 차 문화를 이용하여 중국 전통문화의 영향력을 높이는 방식과 과정은 어떤 것인지 정리하고자 한다.

문화와 경제가 하나로 통합되어 발전하는 것은 이미 하나의 추세가 되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문화력은 경제와 사회발전을 추진하는 내재적 힘이 된다. 차 문화는 종합적인 국력 가운데서 차 문화는 한 나라의 국력을 키우는 경쟁

---

1) ‘문화력’은 경제와 사회발전을 추진하는 내재적 힘이다. 자춘핑(賈春峰)은 중국에서 ‘文化力’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학자로, 사회경제 발전에서 문화의 지위와 역할을 반영하였다. 이는 중국의 경제건설 중심의 사회주의 현대화의 역사적 진행 과정에서 시장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확립하는 중요한 시기에 반드시 ‘문화력’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하며, 문화사업이 시장경제 조건하에서 새로운 발전과 새로운 번영을 실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력있는 문화가 되어야 하며, 하나의 독립적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견해는 새로운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중국 차 문화 발전 단계의 고찰을 토대로 현대 사회에 미친 영향 및 21세기라고 하는 세계화와 다원화된 문화 속에서 차 문화의 발전을 전망하고자 한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서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 넓히고 특히, 우리나라 차 산업과 차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제 2 절 선행연구

중국은 차의 본고장으로 차 문화 역시 그 역사가 유구하다. 중국은 차 산업 경제가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무역 및 일상 생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날 차 문화는 차 산업 발전 과정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건국 이래 차 산업 경제와 차 문화와 관련된 성과도 상당하다. 중국의 차 문화 연구자인 타오더천(陶德臣)은 《농업고고(農業考古)》에 〈중국다업경제사연구총술(中國茶業經濟史研究綜述)〉<sup>2)</sup>과 〈중국농업경제사연구총술-후속(中國農業經濟史研究綜述-續)〉<sup>3)</sup>을 각각 게재했다. 타오교수는 이 연구에서 전면적인 자료 수집을 기반으로 건국 이래 차 산업 경제 연구 상황을 총론 한 것이다. 이처럼 차 산업과 농업 경제사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는 학계에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차 산업 경제를 연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의 차 문화를 주제로 한 선행연구들은 중국은 물론 동양권에 있는 나라에서도 근래에 들어 다학(茶學) 전문 교육기관에서 전공자들을 배출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중국의 차 문화 관련 연구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음다(飲茶) 문화를 고찰한 연구는 크게 차 문화 발전사, 한·중·일 삼국의

2) 陶德臣, 〈中國茶業經濟史研究綜述〉, 《農業考古》, 2001.4. 246쪽.

3) 陶德臣, 〈中國茶業經濟史研究綜述(續)〉, 《農業考古》, 2002. 258-270쪽.

차 문화에 관한 비교, 육우(陸羽)의 《다경(茶經)》, 차의 전매법, 차의 예술, 차의 성능 및 차의 약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에서 진행된 차의 문화사적 연구를 살펴보면, 원로 다인 김명배(金明培)는 차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한·중·일 삼국의 차 문화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진행하여 체계적인 학술 논저를 지속해서 발표하였다. 그는 〈다동소고(茶童小考)〉에서 우리나라 삼국과 고려, 조선 시대의 유교·불교·도교의 다동(茶童)을 대상으로 시문과 회화 자료로 비행 청소년의 선도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sup>4)</sup> 김명배(金明培) 선생의 또 다른 연구업적으로는 〈승설(勝雪) 김정희(金正喜)의 다도 연구〉, 〈이규보(李奎報)의 다도 연구〉, 〈초의선사(艸衣禪師)의 다도 연구〉, 〈동다송(東茶頌)과 다경(茶經) 채요(採要)〉, 〈백장청규(百丈淸規)의 다례(茶禮) 연구〉, 〈도다변증설(茶茶辨證說)의 출전고(出典攷)〉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논자는 주로 초의선사와 조선 시대 다인(茶人)들의 다도관과 종교 다례(茶禮)를 소개하였다.<sup>5)</sup> 이외에도 《일본의 다도》, 《중국의 다도》, 《다도학(茶道學)》, 《다도학 논고(茶道學 論攷)》 등을 통해 동양 삼국의 차 문화와 삼국의 차 문화 비교 및 차 문화 전반에 대해 조명하였다.<sup>6)</sup>

강육발(姜育發)의 〈선진차사(先秦茶史)에 대한 고증학적 접근〉에서는 《다경》 칠지사(七之事)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여 선진시대의 다사(茶史) 및 다자(茶字)의 변화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다사(茶史)의 일반적 개념을 재정리하였다. 이 밖에도 그의 〈중국다도 정신세계의 연구〉와 〈다성(茶聖) 육우(陸羽)의 학문과 유학사상〉이 있다.<sup>7)</sup> 임정희(林靜姬)는 〈선진양한위진남

4) 金明培,〈韓國의 茶童小考〉,《한국차학회지》제1권 제1호, 1995. 45-50쪽.

5) 金明培,〈勝雪 金正喜 茶道 研究〉,《한국차학회지》제3권 제1호, 1997. 6.  
 \_\_\_\_\_ 〈李奎報의 茶道研究〉,《한국차학회지》제4권 제1호, 1998. 3.  
 \_\_\_\_\_ 〈艸衣禪師의 茶道研究〉,《한국차학회지》제3권 제2호, 1997. 12.  
 \_\_\_\_\_ 〈東茶頌과 茶經 採要〉, 국회 도서관보 제145호 1980. 1.  
 \_\_\_\_\_ 〈百丈淸規의 茶禮 研究〉,《한국차학회지》제6권 제1호, 2000. 3.  
 \_\_\_\_\_ 〈茶茶辨證說의 出典攷〉,《한국차학회지》제5권 제1호, 1999. 3.

6) 金明培,《日本の 茶道》, 도서출판 보림사, 1987.  
 \_\_\_\_\_ 《中國의 茶道(역저)》,明文堂, 1985.  
 \_\_\_\_\_ 《茶道學》, 학문사, 1987.  
 \_\_\_\_\_ 《茶道學 論攷》, 대광문화사, 2001.

7) 姜育發,〈秦茶史에 대한 考證學的 接近〉,《한국차학회지》제8 권제3호, 2002.

북조(先秦兩漢魏晉南北朝) 시기의 음다 문화의 고찰에서 중국차의 태동기를 중심으로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였으며, 다인들의 음다(飲茶) 배경, 차의 사회적 기능 및 효능을 살펴보았다.<sup>8)</sup> 송해경(宋海景)은 〈중국 점다문화(點茶文化) 발전사에 관한 연구〉에서 중국의 당대 이전부터 명대까지 차 문화의 발전사를 소개하면서, 시대별 음다법을 분석하고, 점다문화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다.<sup>9)</sup>

서정임(徐貞任)의 〈당대 문인의 다도관 연구〉에서는 육우(陸羽)의 생애와 다도 정신, 차 문화 형성 배경과 문인들의 다도관과 당대의 차 문화 및 육우를 비롯한 문인들을 중심으로 다시(茶詩)를 살펴보면서 한국 다론(茶論)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다.<sup>10)</sup> 최은하(崔銀河)의 〈중국 다시(茶詩) 연구〉에서는 중국차의 음다 문화와 명칭의 변화, 정립 과정을 살펴보고, 차와 불교와의 관계 및 불교에서 나타난 선시(禪詩)와 다시(茶詩)에 대해 고찰하였다.<sup>11)</sup> 이외에도 이운희(李云姬)의 〈초의선사(艸衣禪師)의 다도관(茶道觀)〉, 채정복의 〈초의선사(艸衣禪師)의 다선수행론(茶禪修行論)〉 등이 있다.<sup>12)</sup>

다례와 관련된 연구로는 김수인(金修忍)의 〈송대 선원다례(禪苑茶禮)에 대한 연구〉에서는 송대 청규서(淸規書)의 출현 배경과 선종(禪宗)의 깍다가풍(喫茶家風), 송대 선원차 문화와 수행의 윤리 및 다탕의례(茶湯儀禮)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 저서 《청규(淸規)와 차》를 통해 송대 선원의 다례가 일본, 월분, 연중행사를 거쳐 이루어짐과 소임의 진퇴나 장례에 이르는 모든 행사에 다례가 수반된 종교의 다례를 살펴보았다.<sup>13)</sup>

오원경(吳元敬)의 〈훈례 상제례(喪祭禮) 중의 다례속(茶禮俗)〉에서는 중국차의 기원과 음다의 보급 및 차 풍속을 살펴보고, 훈인의 풍속과 상제 예속

\_\_\_\_\_ 〈中國茶道 精神世界的 研究〉, 《아시아민족조형학회》 통권 4, 2003.

\_\_\_\_\_ 〈茶聖 陸羽의 學問과 儒學思想〉, 《한국차학회지》 제9권 제2호, 2003.

8) 林靜姬, 〈先秦兩漢魏晉南北朝時期的 飲茶文化 考〉,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 논문, 2009.

9) 宋海景, 〈中國 點茶文化 發展史에 關한 研究〉,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10) 徐貞任, 〈唐代 文人的 茶道觀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 논문, 2008.

11) 崔銀河, 〈中國 茶詩 研究〉, 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12) 李云姬, 〈艸衣禪師의 茶道觀〉, 동국사상 제18호, 동국대 불교대학, 1985.

채정복, 〈艸衣禪師의 茶禪修行論〉,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13) 金修忍, 〈宋代 禪苑茶禮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로 고찰하였다. 또한, <다경(茶經)을 통해 본 당대 음다문화 연구>에서는 육우의 생애와 다사(茶史)를 개괄적으로 논술하고 당대 전후의 차 문화의 형성 요인과 제다법을 분석하였다.<sup>23)</sup> 그 외에도 김진숙(金珍淑)은 <다경에 나타난 당대 제다(製茶) 공구(工具) 고찰>에서 당대의 제다법을 《다경》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sup>24)</sup> 임정희는 <선진양한위진남북조(先秦兩漢南北朝)시기의 음다문화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중국 차 문화의 태동기의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sup>25)</sup>

이상에서 논의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차 문화의 변천 과정을 상세히 고찰한 음다사 정리에 치중되어 있다. 둘째, 각 왕조들의 흥망성쇠와 운명을 함께한 차 문화의 시대적 의의, 사회적 원인 등을 고찰한 연구가 많았다. 셋째, 고대 다서를 정리 수록하는 문헌학적 고찰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걸음 더 나아가 차 문화의 기능 및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문화에 중요성이 강조되는 요즘 향후 차 문화 발전에 좀 더 객관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 3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1. 연구 범위

차 문화는 현대사회에서 생명력 있는 문화로 국가 문화 경쟁력의 구성 부분이 되고 민족문화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차 문화의 변천 단계를 토대로 차 문화의 기능과 현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고찰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

23) 金珍淑, <茶經을 통해 본 唐代 飲茶文化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24) 金珍淑, <茶經에 나타난 唐代 製茶 工具 考察>, 《한국차학회지》 제14권 제1호, 2008. 82-83쪽.

25) 임정희, <선진양한위진남북조(先秦兩漢南北朝)시기의 음다 문화 고찰>,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4쪽.

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 목적, 선행연구, 연구 범위 및 방법과 연구의 흐름을 제시한다.

제2장은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차 문화의 개념을 정리하고 본 연구의 관점을 밝히고, 차 문화의 기원과 시기를 살펴본다.

제3장은 역사적인 시각에서 서로 다른 시대에 나타나는 차 문화의 발전과 원인을 고찰한다. 중국 차 문화의 역사적 변천은 다시 차 문화 태동기, 차 문화 형성 및 발전기, 차 문화 번영기, 차 문화 변화기, 차 산업 부흥기 등 5단계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제4장에서는 중국 차 문화의 기능과 사회적 영향을 기술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주로 차 문화가 현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차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사람들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5장은 본 연구에 대한 전체적인 결론으로, 차 문화의 발전을 전망하고,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연구의 시사점과 연구 수행과정 중 나타난 한계점 및 향후 차 문화를 발전시키는 방식과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국 차 문화의 변천 과정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는데, 연구의 수행을 위해, 실증적 방법 및 귀납과 연역 방법, 문헌 연구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문헌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연구 논문과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을 참조하였다.

실증적 방법에서는 역사와 현실에 대한 많은 현상과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을 통해 기본적인 관계나 이와 관련된 규칙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가설을 제시하며, 나아가 실제 경험이나 데이터가 이를 검증하거나 입증하는 경험적 연구가 되겠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는 가설의 보완이나 새로운 가설을 제시할 근거를 제공한다.

귀납과 연역 방법에서는 많은 개별 사실 중에서 일반적인 결론을 개괄해 내는 것으로 특수한 것으로부터 일반적인 인식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문헌 연구에서는 차 문화에 관한 기존의 문헌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 후, 그 문헌 자료에서 선택적으로 연구자들의 관점 및 사상, 방법 등을 본 연구에 채택한다.

## 제 2 장 중국 차 문화의 정의와 기원

### 제 1 절 중국 차 문화의 정의

#### 1. 차의 정의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의 ‘차(茶)’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차나무의 어린잎을 달이거나 우려 물이고, 식물의 잎이나 뿌리, 과일 따위를 달이거나 우려 만든 마실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차나뭇과의 상록 활엽 관목으로 잎은 긴 타원형인데 두껍고 윤이 난다. 10-11월에 흰 꽃이 가지 끝의 잎겨드랑이에 1-3개씩 피고, 열매는 다음 해 11월에 다갈색으로 익는다. 어린 잎과 잎은 녹차나 홍차의 원료로, 열매는 기름을 짜서 쓰고, 재목은 단추 만드는 재료로 쓰이고,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지에 분포한다.<sup>26)</sup>

또한, 중국학자 이진(李震)은 “차나무는 동백나무 과에 속하는 상록 관엽수이며, 잎이 치자(梔子)나무를 닮은 남쪽 지역에서 자라는 성스러운 나무이다. 그 이름은 ‘차(茶)’라고 하며 欖(가), 設(설), 茗(명), 薺(천)이라고도 불린다.”<sup>27)</sup>고 하였다. 위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하나는 찻잎이나 차 가루로 이루어진 고체이고, 하나는 차를 달이거나 우려낸 음료이다. 다시 말해서 전자는 차를 일컫는 것이고 후자는 넓은 의미에서의 차를 마시는 일까지 포함된다.

차는 고대로부터 여러 명칭 외에 또 다양한 별칭을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 ‘茶’자는 당대 이전부터 “도(茶), 천(薺), 가(欖), 설(設), 타(訛), 명(茗), 가(蔎), 가맹(蔎萌)”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 것 이외에도 별칭들이 상당히 많았다. 서해영(徐海榮)의 《중국다사사전(中國茶事大典)》과 《다도(茶道)》를 토대로 차의 별칭들을 살펴보다라도 화유(花乳), 감로(甘露), 금병(金餅), 낙노(酪奴), 서초괴(瑞草魁), 조번자(滌煩子) 등으로 다양하다. 또한 문인들은 찻잎이나 차의 색깔, 향기, 맛, 다탕(茶湯)의 아름다움을 극찬하는 다양한 차명을 작

2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27) 李震 編著, 《茶之道》, 中國商業出版社, 2004.1-2쪽

품 속에 담아놓았다. 이러한 다양한 차의 명칭을 통해, 작품 속에 있는 작가의 세계관과 정경, 당시의 차풍까지 유추하게 한다. 삼황오제부터 송대까지 문학에 나타난 별칭들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別稱	分類	朝代	著者	題目	內容
茶	古體字	漢	許慎	說文解字	‘茶’古茶也
茗	嫩葉	漢	許慎	說文解字 艸部	茗,茶芽也
茗汁		魏	楊銜之	洛陽伽藍記	常飯鯽魚羹,渴飲茗汁
荈	別稱	魏	元欣	魏王花木志	其老葉爲之荈,嫩葉爲之茗
酪奴	別稱	魏	楊銜之	洛陽伽藍記	戲稱茶爲酪奴,卽酪漿的奴婢
茗飲	茶湯	魏	張輯	廣雅	餅成以米膏出之,欲煮茗飲先炙令赤色
水厄	戲稱	魏	楊銜之	洛陽伽藍記	好蒼門水厄
葭	別稱	蜀	陸羽	茶經 一之源,	其名 一曰茶,二曰檟,三曰葭,四曰茗,五曰荈.
苦茶	方言	蜀	郭璞注	爾雅 釋木 檟	蜀人名之苦茶.
雲腴	雅稱	唐	皮日休	奉和魯望四明山九題,青楸子	味似雲腴美,形如玉腦圓
茶神	譽稱	唐	佚名	大唐傳載	置於釜竈上左右爲茶神
靈草	美稱	唐	陸龜蒙	奉和袋美茶具十詠茶	賦識靈草,自然種野姿
晚甘侯	戲稱	唐	孫樵	送茶與焦刑部書	晚甘侯十五人遺侍齋閣.
甘露	贊稱	唐	陸羽	茶經 七之事引《宋》	此甘露也,何言茶茗.
金餅	雅稱	唐	皮日休	茶中雜咏〈茶焙〉	初能燥金餅,漸見干瓊液
芳茗	美稱	唐	陸希聲	茗坡	二月山家穀雨天,半坡芳茗露華鮮
瑞草魁	贊稱	唐	杜牧	題茶山	山實東吳秀,茶稱瑞草魁
月團	喻稱	唐	盧仝	走筆謝孟諫議寄新茶	開緘宛見諫議面,手閱月團三百片
滌煩子	別稱	唐	施肩吾		茶爲滌煩子,酒爲忘憂君
芳茗	美稱	唐	陸希聲	茗坡	二月山家穀雨天,半坡芳茗露華鮮
瑞草魁	贊稱	唐	杜牧	題茶山	山實東吳秀,茶稱瑞草魁.
月團	喻稱	唐	盧仝	走筆謝孟諫議寄新茶	開緘宛見諫議面,手閱月團三百片
滌煩子	別稱	唐	常伯熊	烹茶帳中	茶爲滌煩子
滬茶	茶名	五	毛文錫	茶譜	滬州之茶樹…每登樹采,摘芽茶
麥顛	茶名	五	毛文錫	茶譜	鳥嘴,麥顛,蓋取其嫩芽所造.
鳥嘴	茶名	五	毛文錫	茶譜	鳥嘴,麥顛,蓋取其嫩芽所造.
片甲	茶名	五	毛文錫	茶譜	芽葉相抱如片甲也
蟬翼	茶名	五	毛文錫	茶譜	蟬翼者,其葉嫩薄如蟬翼也
不夜候	謔稱	五	胡嶠	飲茶	霑牙舊姓餘甘氏,破睡當代不夜候
湯神	戲稱	五	陶穀	茗荈	吳僧文了,善烹茶
餘甘氏	謔稱	五	胡嶠	飲茶	霑牙舊姓餘甘氏,破睡當 代不夜候
草中英	譽稱	五	鄭遨	茶	嫩芽香茶且靈,吾謂草中英

頭	茶名	宋	黃儒	品茶要錄	茶之精絕者曰頭曰亞頭
苦口師	諺稱	宋	皮光業	題詩	未見甘心氏, 先迎苦口師
茶星	譽稱	宋	範仲淹	和章岷從事門茶歌	森然萬象中, 焉知無茶星
芳芽	譽稱	宋	丁謂	北苑焙新茶	宿葉寒猶在, 芳芽冷未伸
冷面草	貶稱	宋	陶穀	茗荈	了無和之態, 可謂冷面草也.
鷄蘇佛	戲稱	宋	陶穀	茗荈	生涼好喚鷄蘇佛, 回味宜稱橄欖仙
春貢	譽稱	宋	鄒浩	次韻答密雲龍之什	壑源春貢職此心, 不比豫州常泉紵
春英	雅稱	宋	韋驥	謝簡夫太博惠茶	越嶺掇春英, 淮城惠不輕
春露	雅稱	宋	釋德洪	崇仁縣與思禹遊小寺 啜茶	又置能詩王主簿, 飲餘春露吸深甌
茶串	喻稱	宋	梅堯臣	李令將行返遺以茶	獨持茶串過江來, 已把贈人空手去
茶彩	合稱	宋	李燾	長編	欲受而答以茶彩, 設飲食以接其意
茗杯	雅稱	宋	宋庠	自寶應踰嶺至潛溪臨 水煎	天籟吟松塢, 雲映溢茗杯
雀舌	雅稱	宋	沈括	夢溪筆談	茶芽, 古人謂之雀舌
水豹囊	喻稱	宋	陶穀	清異錄水豹囊	豹革爲囊, 風神呼吸之具也
清人樹	別稱	宋	陶穀	清異錄	宮人呼爲清人樹
漏影春	茶茗	宋	陶穀	荈茗	漏影春, 法用鏤紙貼盞

<표 1> 문학 작품에 나타난 차의 별칭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인들의 작품에 ‘차’를 소재로 한 작품이 많았던 이유는 음다 풍습이 사대부 계층에 깊이 침투해 있다는 이유 외에도 음다가 문인 사대부의 문학 정서를 풍부하게 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차(茶)’자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줄곧 ‘차’와 ‘다’로 혼용 발음되어 오면서 발전을 이루었다.<sup>28)</sup>

차는 오랜 세월 동안 중국을 대표하는 음료로 자리를 굳혀왔고, 일상다반사로 차를 가까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물학적 연구가 시작된 시점은 19세기 초로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2. 차 문화의 정의

다음은 “차 문화”와 “문화”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차 문화”는 “문화”의 하위 개념이므로 문화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국

28) 崔貞順, 앞의 논문 21쪽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차’와 ‘다’로 병행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버넷 타일러는 저서 《원시문화》에서 문화는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 정의가 50여 년간 인류학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다가 인류학 발전과 더불어 문화의 정의는 더욱 다양해졌다. 이처럼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지닌 생활양식이다.<sup>29)</sup> 그렇다면 차 문화 역시 역사적 흐름에 따른 생활양식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겠다.

차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음료 중 하나로 중국에서 유래했음은 이견이 별로 없다. 차와 관련된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150여 개국은 차를 마시는 습관을 갖고 있으며, 이 중 50여 개국은 자체 차잎 생산단지도 갖고 있어서, 거의 모든 나라에는 중국 차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류가 차를 발견하고, 심고, 차를 마신다고 해서 차 문화가 생기고 형성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중국은 신농 시대에 차를 발견했고, 차 문화는 양진(兩晉)과 남북조(南北朝) 때에 와서야 처음으로 싹이 텄다. 그러므로 차와 차 문화는 몇 천 년의 시간 차이가 있는 것이다. 중국 차가 서쪽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 영국에 의해 궁중 귀족의 전유물로 받아들여졌다.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 차를 마시는 과정을 일종의 정신적 즐거움으로 여기면서 다양한 문화 현상이 생겨나고 다양한 사회기능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차는 일정한 역사적 조건의 특별한 산물이다.<sup>30)</sup> 이 말을 요약하면 차 문화는 차잎을 주체로 자연과학 · 인문과학 · 사회과학을 융합한 하나의 문화 즉, 인류문화라는 방대한 체계의 한 갈래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천원화(陳文華)의 또 다른 해석을 살펴보도록 하자. 천원화는 일찍이 문화학적 정의에 따라 차 문화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문화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구분되듯이 차 문화도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넓은 의미의 차 문화는 인류가 사회 역사 발전 과정에서 창조한 차에 관한 물질적·정신적 재부를 총합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은 “문화적 존재로서의 차잎이 정신적 내용을 명확하게 반영하

29) 엄숙·엄영옥, 《중국 역사 속에 꽃피운 차 문화》,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9. 30쪽.

30) 簡伯華, 《茶与茶文化概論》, 湖南科學技術出版社, 2003年8月第一版, 155쪽.



고 있다는 것은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통일의 산물이고, 또 다사(茶事) 인지(認知) 집합 형태에 대한 인간의 현상이다.”<sup>31)</sup>고 했다.

이처럼 차 문화는 그 자체로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이 유기적으로 통합을 이루면서 문화적으로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대 문헌에서 다덕(茶德), 다품(茶品), 다도(茶道) 같은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20세기 80~90년대 이후, 차 문화에 대한 기록이 조금씩 나왔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는 차 문화가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차 문화 역시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많은 학자들이 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각자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인다. 예컨대, 어떤 사람들은 문화가 물질적·정신적 측면을 일컫는다고 한다. 이 때문에 차 문화는 한 면은 물질적이고 다른 면은 정신적이며, 어떤 면은 물질, 정신, 제도 등 문화의 합성체라고 간주하기도 한다. 또, 차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회 현상, 즉 차 문화라는 관점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차 문화는 사람들이 차를 생산, 제조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차’라는 물질을 통해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을 표현하는 통로인 것이다. 사람들은 차를 음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차 문화에 스며들기 때문에 인간들의 문화를 형성하는 주된 요인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 제 2 절 중국 차 문화의 기원

### 1. 차 문화의 기원

차를 언제부터 마셨는지 그 기원에 관해서는 지금까지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역사적 시기에 따라 대체로 신농설(神農說), 상주설(商周說), 서한설(西漢說), 삼국설(三國說)로 구분되고, 역사적 인물에 따라 신농설, 편작설(扁鵲說), 기과설(嵇婆說), 달마설(達磨說), 이아설(爾雅說), 왕포설(王褒說) 등으로 구분

31) 陳文華, 《中華茶文化基礎知識》, 中國農業出版社 2004年5月, 96-97쪽.

되고 있다.

육우는 《다경》에서 ‘차가 음료로 사용되었음은 신농에서부터 등장한다(茶之爲飲, 發乎神農)’<sup>32)</sup>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차는 선사(先史) 시대에 발견되고 음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의 차는 《신농본초(神農本草)》에 ‘신농이 백초를 맛보고 일흔 두 가지 독에 걸렸을 때 차로 해독하였다(神農嘗百草, 日遇七十二毒, 得茶乃解)’<sup>33)</sup>라고 기록되어 있는 등 해독에 좋은 약용 식물로 활용되었다.

이 기원설에 의하면 삼황오제시대는 중국에서 가장 먼저 차나무를 발견하고 재배하였으며, 차를 음용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의 기원설을 통해 차가 몸에 좋은 음료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인류에게 해독 작용과 숙취 등에 뛰어난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의 기원과 더불어 차 문화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차를 마시는 최초의 문화가 형태적으로 나타났던 시기를 한(漢) 대로 거슬러 볼 수 있다. 차 문화에 기록된 최초의 문헌은 전한(前漢) 때 왕포의 《동약(僮約)》에서 “차를 끓이고, 찻그릇을 씻고 정리하며, 무양(武陽)에 가서 차를 사 온다”는 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다.<sup>34)</sup>

중국에서 최초에 차 문화를 즐긴 사람들은 서민이 아닌 문인과 선비들이었다. 중국 문학사에서 손꼽을 수 있는 유명한 저자로 한(漢) 대의 사마상여(司馬相如)와 양웅(楊雄)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초기의 유명한 다인이다. 사마상여는 일찍이 《범장편(凡將篇)》을, 양웅은 《방언(方言)》을 창작하였는데, 전자는 약용적 측면에서, 후자는 문학적 측면에서 각각 차를 논의했다.

이 밖에 진대(晉代)의 장재(張載)는 《등성도루시(登成都樓詩)》를 통해 차 문화를 잘 드러내고 있는데, 이 작품들은 중국에서 비교적 이른 차 문화의 모습이었다. 《등성도루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양웅에게 물어보니 사마상여가 그림다고 하네. 향기로운 차는 육정의 제일이고 그 맛은 천하에 가득하네”

32) 陸羽著, 藍彬主編, 《陸羽茶經誦讀》, 中國輕工業出版社, 2017, 58쪽. 《茶經》〈六之飲〉“茶之爲飲, 發乎神農氏…”.

33) 舒玉傑編著, 《中國茶文化古今大觀》, 北京出版社, 1996. 561쪽.

34) 陳樂融, 《論〈僮約〉之諧趣》, 青年文學家, 2021. 27쪽. 왕포(王褒)의 《동약(僮約)》은 노비에 대한 구속 규정이 적혀 있는 ‘계약서’를 말한다. 후인은 주인과 노비와의 계약 또는 종에 대한 각종의 구속규정을 두루 가리켰다. 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王褒《僮約》: “烹茶盡具, 武陽買茶.”

35)인데, 세 번째 시행에 차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한다. 이 작품은 5언시로 구성되었으며,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시기의 문학 작품으로 차 문화를 통해 유가의 생활상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차 문화는 유교·도교·불교 사상의 정수를 흡수하여 중국 사회에 중대한 공헌을 하였는데, 당대의 승려 교연(皎然), 여도사인 이야(李冶), 은사(隱士) 육우(陸羽)가 함께 당대의 다도(茶道)를 만들었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차 문화가 생겨난 초기는 유가(儒家)의 적극적인 입세(入世) 사상에서 시작되었다. 위진남북조 시기, 일부 안목이 있는 정치가들은 “차로 술을 대신하고, 차로 청렴함을 기르자(一茶代酒, 以茶養廉)”고 주장하면서 당시의 사치 풍조에 대항했다. 그 뒤로 우수한 다인들이 많이 나타났으며 문인들에게는 차가 흥을 돋우고 사유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유가의 차 문화의 정신은 중용(中庸)을 전제로 하여 화합의 분위기 속에서 차를 마시면서 교류하고 우정을 돈독히 하는 것이다. “깨우침, 달관(達觀), 열정, 친화, 포용”의 특징은 유가(儒家)의 다도 정신으로, 마음의 수양과 철학을 예도로 발전시킨 것이다.

불교적 측면에서, “음다”와 “선(禪)”을 연결한 최초의 자료 《봉씨문견기(封氏聞見記)》는 당대 사회 문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꼽히며, <음다조(飲茶條)>에는 “개원년 간에 태산의 영암사(靈巖寺)에 강마(降魔) 스님이 있었는데, 선교를 크게 일으켜 선을 닦으면서 잠을 자지 않는데 힘썼고 또 저녁을 먹지 않고 모두 차를 마시는 데 의지하였다. 사람들이 품에 차를 끼고 도처에서 차를 마셨는데, 이로부터 점점 더 본받아 마침내 풍속이 되었다.”<sup>36)</sup>라고 기록되었다.

중국 불교가 정신을 맑게 한다는 이유로 차를 선택하여 차 문화 발전에 무시할 수 없는 작용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차와 불교의 연원에 대해서는 중국 불교 발전의 역사적 배경에서 순수하고 생리적인 욕구가 불리(佛理), 다성(茶性)으로의 상호교합, 나아가 언어, 문자의 변화, 불교의 중국화,

35) 陸羽著, 藍彬主編, 앞의 책, 71쪽. 《登成都樓詩》張載:“借問楊子舍, 想見長卿廬, 芳茶冠六情, 溢味播九區.”

36) 鄭明道, 〈封氏聞見記·飲茶淺注〉, 《中國茶葉》, 2017. 44쪽. “開元年間泰山靈岩寺有降魔師大興禪教學禪, 務于不寐, 又不夕食, 皆許其飲茶, 人自懷挾, 到處煮飲, 從此轉相仿效, 遂成風俗.”

나아가 중국 왕조와의 변화, 중국 문화의 변화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sup>37)</sup>

도교적 측면에서 볼 때, 덕망이 높은 도사가 차를 맛보며 생명에 대한 애정과 탈속 의식을 담아 중국 차 문화에 공허한 경지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당대의 여도사 이야(李冶), 시견오(施肩吾), 여동빈(呂洞賓), 정오(鄭遨), 5대 때 고도(高道) 두광정(杜光庭) 등이 다도에 뛰어났다. 이 가운데 이야는 금예(琴藝)에 능하고 시어에 능하면서도 당시의 유사(儒士), 유명한 승려 및 다인과 교류 하였으며, 특히 육우, 교연(皎然)과 상계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한 문인 읊다 그룹의 구성원 중 한 사람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녀는 육우와 시로써 화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전당시(全唐詩)》에는 그녀의 시 《호상와병희육홍점지(湖上臥病喜陸鴻漸至)》가 남아 있어 육우와의 친분 관계를 잘 보여 주고 있다.<sup>38)</sup>

도교는 도사들의 수련 생활에 차를 도입하여 차를 손님에게 대접할 것을 권장하고, 차를 “귀신 잡기”의 진상 및 질병 제거의 양생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민간의 읊다 습관의 형성을 촉진시켰다. 도교도들이 차를 즐겨 마시는 것은 도교의 인생에 대한 추구하고 삶의 정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도교는 삶을 즐거움으로 삼고 장수를 큰 즐거움으로 하며 죽지 않고 신선이 되는 것을 극락으로 삼는다. 도교의 신도들은 한운야학(閑雲野鶴)과 같은 은자생활을 즐기며 자유를 지향하는데, 차를 마시는 것 또한 최고의 삶의 경지를 추구한다고 여겼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유가(儒家)는 다도(茶道)에서 서로 협력하고 평안을 다스리는 법칙을 발견해 자신의 사회관을 표현하였고, 불가(佛家)는 차의 고적(苦寂)을 체득하여 선(禪)을 도왔으며, 도가(道家)는 공령자연(空靈自然)의 관점을 관철하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양생을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유교는 개인적 성정의 안정과 원만한 삶 및 조화로운 공동체 운영을 지향하고, 도교는 자연으로부터의 일탈에 따른 심신의 고달픔을 덜고

37) 郭華青, 〈茶在中國佛教寺廟中的應用研究〉, 華南農業大學 碩士學位論文, 2018. 21쪽.

38) 李冶·薛濤·魚玄機著, 《李冶薛濤魚集》, 中國書店出版社, 2017. 8쪽. 李冶 詩《湖上臥病喜陸鴻漸至》“昔去繁霜月, 今來苦霧時(변화한 상월은 이미 지나고 오늘은 심한 안개 낀 때라) 相逢仍臥病, 欲語泪先垂(상봉날에도 병석에 누워 말하려니 눈물부터 나오네.) 強勸陶家酒, 還吟謝客詩(도가에게 술을 권하고 손님을 위해 시를 읊으리다.) 偶然成一醉, 此外更何之(우연히 취한다면 그 이상 무엇을 더 생각하랴.)”

우주적 생명력을 충전하는 수련과 양생을 지향하며, 불교는 인간 세상과 자연에서 해결 불가능한 근본적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고 생사 초탈의 경지에 닿음을 지향하였다고 하겠다. 이처럼 차는 등장 초기부터 차 문화와 사상, 종교, 학문 등 여러 분야에 시종일관하게 이어져 있었다.

## 2. 차 문화의 시기 구분

차 문화와 차 산업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차 산업의 발전이 차 문화의 발전을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각 왕조 특유의 문화적 영향력으로 차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켰을 수 있다. 따라서 차 역사 분기에 있어서, 필자는 산업과 문화라는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사적 흐름에 따라 차 문화의 시기를 다음의 <표 2>와 같이 태동기, 형성기 및 발전기, 번영기, 변화기, 차 산업 부흥기 등 다섯 가지로 설정하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순서	차 문화 시기	역사 시대
1	태동기	선진(先秦), 진(秦)한(漢)
2	형성 및 발전기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당(唐)
3	번영기	송(宋), 요(遼)·금(金)
4	변화기	원(元), 명(明), 청(淸)
5	차 산업 부흥기	중화인민공화국 1978년 이후

<표 2> 중국 차 문화의 시기 구분

위와 같이 차 문화의 시기를 구분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역사적 원인에 바탕을 두었다.

첫째, 당대는 중국의 차 산업 발전에 있어서 위대한 전환점이다. 당대 중기 육우가 저술한 《다경》의 등장은 중국 차 문화 형성의 징표로서 중국 차 산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중국의 다도는 이미 일반 음용에서 음미로 바뀌고 관습, 취향에서 수양, 문화로 승화되는 새로운 경지에 들어섰다.<sup>39)</sup> 당대 이전의 차 산업이 천천히 발전되면서 차 문화도 더불어 싹텄다. 차 산업은

39) 王從仁, 《中國茶文化》, 上海古籍出版社, 2001. 28쪽.

당대에 들어와 큰 발전을 이루었다. 귀명량(郭孟良)선생은 “중국 차 문화사에서 당대에 들어 우뚝 솟은 고봉은 이후 차 문화 경연의 장관을 열었고, 당대 이전의 오랜 세월 고봉의 역사는 광활한 평야에 보일 듯 말 듯 작은 구름이 수천 리에 이어져 고봉과 연결됐다.”<sup>40)</sup>고 말했다. 이는 당대를 전후하여 차 산업의 발전 상황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당대 차 문화의 발전이 전대에 비해 크게 진보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진남북조와 당대를 차 문화의 형성 및 발전 시기로 삼았다.

둘째, 당대는 차 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차 산업과 더불어 차 문화 역시 급속히 발전했다. 송대에 이르러서는 차 문화가 고도로 발전하여 형식부터 내용까지 차 문화를 꾸준히 보완하고 확장시켜 음다 보급은 차 산업의 번영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송대 때 차 생산지와 생산량이 전례 없이 증가하고 소비 집단이 크게 확대되어 차 무역의 번영을 이룬 것을 보면 송대 차 산업의 발달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자 기록 형식으로서의 발전, 찻집 문화의 융성 발전, 다속(茶俗)의 형성과 서민들의 적극적인 역할, 다예와 다도의 성숙 등은 당시 차 문화 발전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차 문화의 융성 시기가 당대에 크게 발전하여 송대에서 번영했으므로 송대와 요·금을 포함하여 차 문화의 번영기로 정했다.

셋째, 원대부터 명, 청 전기까지 중국 전통 차 산업은 당·송에 이어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비록 우여곡절이 있지만 차 산업이나 차 문화에서 대체로 전통 차 산업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았다. 활력은 부족했지만 각 방면에 비교적 큰 발전이 있었다.

넷째, 청대 중기를 시대단절의 근거로 청대 중기부터 중국 사회는 큰 변화가 발생하였고, 중국은 반식민지 반봉건사회로 전락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경제도 세계자본주의 체계에 휩쓸려 차 생산도 예외가 아니었다. 중국 차 산업의 국제화 추세는 청대 전기부터 시작되었지만, 중국 차 산업의 국제화 융성기가 청대 중기에 도래하였다. 그러나 청대 중기 이후의 사회 격변과 함께 중국의 전통 차 산업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40) 郭孟良, 《中國茶史》, 山西古籍出版社, 2003. 1쪽.

## 제 3 장 중국 차 문화의 역사적 변천

본 장에서는 중국 차 문화의 발전과정을 앞서 논의된 역사적 흐름에 따라 시대별로 고찰하여 중국 고대 차 산업의 발전 면모를 살펴봄으로써, 차 문화 연구의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차 산업과 차 문화는 함께 발전하거나 쇠퇴하는 동기화 과정으로, 차 산업이 흥하면 차 문화가 흥하고, 차 문화가 흥하면 차 산업도 따라서 흥하게 된다.

역사가 발전하고 자연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면서 차는 약용에서 사람들의 일상적 식용으로 바뀌었고, 진한 시대에는 차가 음료로 나타났다. 청대 학자 고염무(顧炎武)는 《일지록(日知錄)》에 ‘진나라 사람이 촉(蜀)을 멸망시키면서부터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自秦人取蜀, 而后始有茗飲之事)<sup>41)</sup>’는 기록이 있듯이 진한시기 파촉지역에서 차를 음용했음을 알 수 있다.

차를 마시는 풍습이 형성되면서 차가 전국적으로 퍼지자, 황실에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차를 좋아하게 되었고, 특히 문인 도사들이 차와 인연을 맺게 되면서 차는 물질적인 차원에서 문화적 의미를 부여받는 의미로 부각되었다. 차 문화는 이처럼 역사적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양분을 흡수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 다양한 성장 과정을 겪게 된다.

송대에 접어들어 차 문화의 성장이 극에 달했는데, 그 시기에는 아름다운 다기와 화려한 다예가 이목을 끌었고, 사회 전역에서 차 마시는 풍토가 성행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로 차 문화는 서서히 내리막을 걸었고, 개혁개방 이후가 되어서야 다시 생기와 활력을 되찾아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성황을 이루었던 것이다.

다음은 차 문화의 발전과정을 역사 시기에 따라 태동기, 형성 및 발전기, 번영기, 변화기, 차 산업 부흥기로 구분하여 차 문화 발전의 단계별 발전 원인, 표현 형식, 사회에 대한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41) 芦葦岸, 《日知錄》, 野草, 2021. 156쪽.

## 제 1 절 차 문화 태동기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차의 기원에 관한 가설에 의하면 삼황오제 시대는 중국에서 가장 먼저 차나무를 발견하고 재배하였으며, 차를 가공하여 마시는 풍습이 생겨났다고 하였다. 후한(後漢) 시대 《신농본초경》과 당대 《다경》에는 차의 약용과 기원에 대해 기록되고 있고, 상고로부터 다인들을 소개하면서 삼황 염제인 신농씨를 저서의 가장 앞부분에 기록하였다.<sup>42)</sup> 또한, 《신농식경(神農食經)》에서는 “차를 오래 마시는 사람은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진다(茶茗久服, 令人有力, 悅志)”<sup>43)</sup>고 하였다.

위 기록들을 통해 신농 시기에 차는 식용과 약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인체에 많은 효능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중국 윈난성에 살던 푸족(苻族) 사람들이 차를 심고 생산, 제다 하였는데<sup>44)</sup>, 기후 특성상 이 지역은 풍부한 식물자원을 소유하고 있어 사람들에게 차를 포함한 각종 식물에 대해 인식을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나평(羅平), 사종(師宗) 일대는 이미 야생 차나무의 인공재배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실은 역사적 차원에서 윈난 보이차의 발아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본장에서는 차 문화에 태동기로 선진시기와 진한대로 구분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 1. 선진(先秦)시기의 차 문화

《이아(爾雅)》 석목편(釋木編)에 “가(檟)는 쓴 도(茶)다.(檟苦茶)<sup>45)</sup>”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가(檟)와 도(茶)가 차에 대한 별칭임과 ‘도(茶)’가 고대 차를 의미한 최초의 기록이다. 이를 근거로 이 한자를 근거로 적어도 3천여 년 전에 차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또, 상(商)대부터 푸족은 윈남성 경계 안

42) 陸羽著, 藍彬主編, 앞의 책, 63쪽.

43) 위의 책, 66쪽.

44) 周紅傑, 朴鎔模 옮김, 《운남보이차》, 한숨미디어, 2005. 22쪽.

45) 陸羽著, 藍彬主編, 앞의 책, 63쪽.



에 살고 있었고 이 지역의 차가 공납용으로 사용되었음도 기록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sup>46)</sup>

주 무왕은 기원전 1066년에 남쪽 지역의 작은 나라를 거느리고 상 주왕을 토벌하였는데, 《화양국지(華陽國志)》에는 “주무왕이 주(紂)를 토벌하여 파(巴), 촉(蜀)의 군대를 전부 빼앗았다. …… 물고기, 소금, 동, 철, 붉은색 옷칠, 차, 꿀 등을 모두 조공품으로 받았다. …… 인공 재배할 수 있는 다원(茶園)이 있어서 차를 생산했다.”<sup>47)</sup>라고 했고, 또 “남안(南安), 무양에서도 명차(名茶)가 생산된다.”<sup>48)</sup>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원남성은 차의 고향이고 3천여년 전 상주(商周) 시대부터 차를 재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시경》의 〈빈풍(邠風)·칠월(七月)〉에 “씀바귀 캐고 가죽나무 딸감베어(采茶薪樗)”라 했고, 〈패풍(邶風)·곡풍(谷風)〉에는 “누가 썸바귀(차)를 쓰다고 했는가, 그 달가움이 냉이와 같네(誰爲茶苦, 其甘如薺).”라는 차와 관련된 문자 기록이 보인다. 사마천의 《사기(史記)》에도 기원전 1066년 서주의 파촉(巴蜀) 지역에서도 차가 재배되었다는 기록이 있다.<sup>49)</sup>

## 2. 진(秦)·한대(漢代)의 차 문화

진시황은 기원전 381년에 쓰촨 분지에 있는 나라들을 합병하여 중국을 통일했는데 이때 비로소 중국의 차 문화가 태동기를 맞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진시황은 변방 지대와 중원 지역의 문화가 상호 교류하도록 강력한 이민 정책을 시행했다. 따라서 동서 간, 남북 간의 이동을 위해 문자의 통일과 대운하 건설을 추진하여 통로를 마련하였는데, 이 시기 차 문화 교류도 함께 이루어졌다. 주지하듯이 진대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로써 다양한 외부의 문화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촉을 멸망시키면서 이 유역의 생산력과 인구가 크게 증가했고, 쓰촨성의 평원 지역에 진의 사람들이 관개 시설을 마련했

46) 염숙·엄영옥, 앞의 책, 55쪽.

47) 李玲, 〈華陽國志歌詩謠諺之文學風貌探析〉, 《河北北方學院學報》, 2021, 1쪽. 常璩, 《華陽國志·巴志》“南周武王伐紂 實得巴蜀之師 … 魚籃銅鐵丹漆茶蜜靈龜 … 皆納貢之 … 園有芳籜香茗.”

48) 위의 논문, 2쪽. 常璩, 《華陽國志·蜀志》“南安武陽皆出名茶.”

49) 염숙·엄영옥, 앞의 책, 55-56쪽.

다. 이를 근거로 이 지역의 차 문화가 중원 지역으로 확대되고 서로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시기에 차 문화와 더불어 도자기 문화도 보다 큰 발전을 가져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서한 때 두 묘지에서 차를 담은 유물 상자에 차와 관련된 글씨가 새겨진 죽간(竹簡)과 목간(木簡)이 출토되었는데 이를 통해 차 문화가 고고학적으로 확인되고 있다.<sup>50)</sup>

또한, 서한 선제(宣帝) 때 신작 3년에 명문 장가인 왕포(王褒)가 과부 양혜(楊惠)로부터 차를 다루는 남자 종인 편료(便了)를 1만 5000냥에 사들이면서 ‘동약(僮約)’이라는 노비매매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계약서에는 “무양(武陽)에 가서 차를 사 오는 일과 손님이 오면 차를 달여서 대접하는 일과 찻그릇을 깨끗이 씻는 일을 했다.(武陽買茶, 烹茶盡具)”<sup>51)</sup>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편료’는 지금의 찻집 전문 종업원에 해당한다.

위 기록을 통해 한대(漢代)에 이르러서는 차가 문화의 형태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테면, 무양 일대의 음다 풍습의 성행과 전용 다기의 실제 사용, 차 시장의 등장, 다사를 전담하는 노비의 등장, 차를 사고팔고 하는 내용 등이 그러하다. 이 기록은 차가 이미 상품화되었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차 문화가 태동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때 당시 무양일대는 중국 차(茶)의 중심지였고, 파촉 지역은 차의 생산지였다. 이로써 쓰촨 지역 일대 사대부들은 차를 생활필수품으로 음용했음을 알 수 있다.

“차를 오래 마시면 생각이 잘 떠오른다.”<sup>52)</sup>라고 했던 동한 때의 화타(華佗)도 “서한의 성제가 붕어한 후 조비연(趙飛燕)은 꿈에 성제를 보았는데, 성제의 말대로 차를 올리고자 하였는데, 곁에 있는 신하들이 조비연은 평소 임금에게 충성하지 못하므로 그가 올리는 차를 마셔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겹을 먹은 조비연은 꿈속에서 비명을 지르는데 시녀가 깨우는 바람에 꿈에서 깨어났다.”<sup>53)</sup>는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차를 마시는 풍습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50) 염숙·염영욱, 앞의 책, 64쪽.

51) 姜育發, 〈차 문화와 유교〉, 《울곡학회》, 2003. 9쪽.

52) 陸羽著, 藍彬主編, 앞의 책, 72쪽. 華佗〈食論〉의 원전은 “苦茶久食 益意思”

53) 김명배, 《중국의 다도》, 명문당, 2001. 22-23쪽.

이밖에 《문원영화(文苑英華)卷五九四》 54)에 ‘오제(五帝) 손호(孫皓)는 위요(韋曜)에게 예의로 차를 대접하도다. 진의 환온(桓溫)과 육납(陸納)이 손님을 대접할 때 친구에게 차를 나누어 준다.(吳主禮賢, 方聞置茗, 晉臣愛客, 才有分茶)’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 고사에서 앞의 두 구절은 삼국 오제 손호가 위요에게 술 대신 차를 마치게 한 사실을 말하고, 뒤의 두 구절은 진 때 환온과 육납이 다연(茶宴)을 베풀어 손님을 대접한 일을 말한다. 여기에서 다연은 ‘차로 잔치함’을 뜻하는데, 이 기록을 통해 나라의 공식적인 의례에서도 차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교활동에서 손님에게 차를 대접한 것은 사람들이 차를 마시는 일에 이미 정신적 문화적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 제 2 절 차 문화 형성 및 발전기

본 장에서는 위진남북조를 차 문화의 형성기로 당대를 차 문화의 발전기로 구분하여 논하기로 하겠다. 차의 형성기를 맞이하는 역사적 시기는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나 대체로 삼국시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제다법과 음다법에 대한 기록을 통해 차 문화가 형성된 상황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시기 쓰촨 일대에서는 쌀죽을 섞어 병차(餅茶)를 만들었고 찻그릇도 도자기를 사용하였으며, 음다 문화는 떡 차를 가루 내어 끓여 마시거나 파, 생강, 꿀 등을 넣어 차와 함께 끓여 마시기도 하였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미 차가 숙취 제거와 불면증에 효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명대의 사대기서인 나관중(羅貫中)의 《삼국지연의》 <도원결의(桃園結義)>편에서 촉의 유비(劉備)가 어머니를 위해 비싼 차를 사는 부분과 황건적에게 차와 보검을 빼앗긴 부분이 묘사되어 있다. 효성이 지극한 유비는 어머니에게 차를 사 드리고자 2년간 자리와 밭을 짜서 꼬박 모았지만 차 한

---

54) 《문원영화(文苑英華)》는 송대 ‘송사대서(宋四大書)’ 중 하나인 시문 총집이다. 송태종 조경명(趙景命) 이방(李昉), 서현(徐鉉), 송백(宋白), 소이간(蘇易簡) 등 20여 명이 함께 편찬하였다. 진책에서 소량(蕭梁)으로 시작하여, 당 5대에 걸쳐 2,200명에 가까운 작가와 20,000편의 문장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으며, 수록된 당대 작품이 전체 약 10분의 9를 차지한다.

통을 사기 어려웠다고 묘사하고 있듯이, 당시 차는 매우 귀한 물건으로서 주로 황족이나 귀족층의 향유물이었다.<sup>55)</sup>

## 1.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시대의 차 문화

서진(西晉)은 진의 설립으로부터 이민족의 침입으로 수도였던 뤼양(洛陽)과 창안(長安)이 함락되기 전까지의 시기를 일컫는다. 서진 시기의 차 문화는 육우의 《다경·칠지사》에 인용된 차에 관한 이야기들을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sup>56)</sup>

뤼양 시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은 부함(傅咸)의 《사예교(司隸教)》에는 쓰촨의 노파가 차 죽을 만들어 파는데 관리들이 와서 다구들을 부수자 다음엔 떡 차를 만들어 팔았더니 차를 팔게 했다. 같은 차 제품을 팔았는데도 마시는 차죽은 못 팔게 하고, 차 떡은 팔게 하는 것을 보고 부함이 이를 이상히 여겨 물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sup>57)</sup> 이는 당시 차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정도를 반영한 것으로, 차는 식품 차원에서 판매가 허용되었으나 음식 차원에서는 허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차를 끓이는 장면을 노래한 시 중 가장 이른 작품이라는 진대 좌사(左思)의 《교녀시(嬌女詩)》에 “차를 마시고 싶은 마음에, 술에다 훌훌 입김 부는 모습을 보며”<sup>58)</sup>라는 시구가 있는데, 좌사(左思)의 두 여동생인 혜방(惠芳)과 환소(紈素)가 차를 끓이는 광경을 묘사한 것으로, 고상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다예(茶藝)와 두 여동생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시인의 마음이 담겨 있다.

서진의 차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두육(杜育)의 《천부(荈賦)》가 있다. 이것은 ‘부(賦)’의 형식을 띤 차의 노래로는 최초의 작품이다. 작품은 몇 마디 안 되는 구절만으로 차잎을 심고 따고 볶고, 차를 우려낼 때 사용하는

55) 염숙·엄영욱, 앞의 책, 69쪽. 이 고사는 일본 민간에서 널리 알려지는 요시카와 에이지(吉川英治)가 재창작한 《삼국연의(三國演義)》〈도원결의(桃園結義)〉편에 새로운 판본에 등장한 고사이다. 후에 장비가 황건적에게 빼앗긴 차를 다시 빼앗아서 유비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어머니께 효도했다고 한다.

56) 위의 책 78-80쪽.

57) 陸羽著, 藍彬主編, 앞의 책, 69쪽. 晉 傅咸《司隸校尉教》:“聞南方有蜀 嫗, 作茶粥賣之。”

58) 위의 책 70쪽.

찾그릇과, 차를 마실 때 찾잎 상태까지 다양한 장면을 시를 통해 잘 묘사하고 있다.<sup>59)</sup>

또 홍군거(弘君擧)가 《식격(食檄)》에서 “추위와 더위를 묻는 인사가 끝나면 흰 거품이 서리꽃 같은 좋은 차를 만들어낸다. 석 잔을 마시고 난 후에 사탕수수, 모과, 배, 딸기, 오미자, 올리브, 박, 아욱국을 가미해 한 잔씩 낸다.”<sup>60)</sup>는 것은, 다회(茶會) 때 좋은 차로써 말발이 있는 가루차 석 잔을 내어 마신 후 다른 차종을 내어놓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장재(張載)의 《등성도루(登成都樓)》에서는 차를 육정(六情)<sup>61)</sup>과 육청(六靑)으로 해석하고 있다. 육정은 희(喜), 노(怒), 애(哀), 락(樂), 애(愛), 오(惡), 욱(慾)으로 모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음료로 형이상학적 해석을 할 수 있으며, 육청은 물(水), 미음(漿),醴(단술), 醕(약술), 醇(진한 술), 醬(간장)으로 모든 식품의 으뜸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62)</sup>

동진(東晉) 시대 무장이었던 유곤(劉琨)은 《여형자남연주자사연서(與兄子南兖州刺史演書)》에서 ‘8 왕의 난’을 거치는 전장의 어려움 속에 유곤이 조카 유연(劉演)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전에 안주에서 얻었던 말린 차 한 근, 생강 한 근, 계피 한 근이 모두 필요하다네. 내 몸이 답답할 때 오로지 참된 차로 피로한 내 몸을 풀었으니 네가 내 말을 꼭 믿고 그렇게 하라”<sup>63)</sup>며, 편지를 통해 오직 참된 차(茶)를 얻어 박절한 번민의 마음을 풀려는 생각을 절실하게 표현하였다.

《다경》에 의하면 “진무(陳務)의 아내가 어느 날 꿈에서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3 백 년 이상 이 무덤에 살았는데, 당신의 두 아들이 자꾸 무덤을 망쳐버리려고 하는데, 다행히 당신이 보호해 주고 차를 잘 타서 제사를 지내니, 나는 땅속에 뼈만 묻혔지만 어찌 은혜를 잊고 갚지

59) 염숙·엄영옥, 앞의 책 78쪽.

60) 陸羽著, 藍彬主編, 앞의 책, 72쪽. 弘君擧《食檄》“寒溫既畢, 應下霜華之茗; 三爵而終, 應下諸蔗、木瓜、元李、楊梅、五味、橄欖、懸豹、葵羹各一杯”

61) 여기에서 육정(六情)은 《예기(禮記)》〈예운(禮運)〉편에 출현된 사람의 일곱 가지 감정으로, 이를 다스릴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차라는 것을 뜻한다.

62) 각주 35 참조.

63) 陸羽著, 藍彬主編, 앞의 책, 69쪽. 劉琨《與兄子南兖州刺史演書》:“前得安州干茶一斤, 姜一斤, 桂一斤, 皆所需也。吾体中煩悶, 恒假眞茶, 汝可信致之”

않을 수 있겠는가?”<sup>64)</sup> 라는 고사를 통해서도 차가 제사의례와도 연관함을 알 수 있다.

또 왕부(王浮)의 《신이기(神異記)》에 ‘우홍(虞洪)이 도사 단구자(丹丘子)를 만나 단구자의 묘 앞에 차를 올린 후 많은 야생차를 따다.’<sup>65)</sup>는 내용으로 미루어 이 시기에는 차의 재배가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산겸지(山謙之)의 《오흥기(吳興記)》에 의하면 남조 송대의 산겸지는 “오정현(烏程縣)에서 20 리 떨어진 곳에 온산(溫山)이 있는데 그곳에는 임금에게 바치는 어차·어천(御茶·御薺)이 난다.”<sup>66)</sup>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어천(御薺)’을 주목할 수 있는데, 당시 ‘천(薺)’은 수확이 늦은 차가 아니라 차의 이명으로 사용되었다.

《다경》〈송록(宋錄)〉의 기록은 남조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신안왕(新安王) 유자란(劉子鸞)과 예장왕(豫章王) 유자상(劉子尙)이 팔공산에서 담제도인(曇濟道人)을 비방했을 때 담제도인이 차로 환대하자 자상은 이를 차가 아니라 감로(甘露)라 하였다.<sup>67)</sup> 당시의 차는 쓰고 떫은 맛이 있었음을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담제도인은 두 왕자에게 최상의 특별한 차를 대접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남제세조무황제유조(南齊世祖武帝遺詔)의 《무제본기(武帝本紀)》에는 “내가 죽은 후 나의 영전에 가축을 바쳐 제사 지내지 말라. 다만 제사상에 차, 떡, 과일, 육포, 술, 밥만 올리면 된다.”<sup>68)</sup>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서 차의 검소한 성품을 반영한 한 지도자의 삶의 모습을 엿 볼 수 있으며, 제사 예식에 차를 올렸다는 현존하는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후위록(后魏錄)》에 기록된 “랑아(瑯邪)와 왕숙(王肅)은 남조에서 벼슬을

64) 위의 책, 74쪽. 《昇苑》曰：“其夜夢一人云：‘吾止此冢三百余年，卿二子恒欲見毀，賴相保護，又享吾佳茗，雖潛壞朽骨，豈忘翳桑之報？’”

65) 위의 책, 70쪽. 《神異記》載“余姚人虞洪入山采茗，遇一道士，牽三青牛，引洪至瀑布山曰：‘子，丹丘子也，聞子善具飲，常思見惠。山中有大茗，可以相給，祈子他日有甌犧之余，乞相遺也。’因立奠祀，后常令家人入山，獲大茗焉。”

66) 위의 책, 80쪽. 《吳興記》載：“烏程縣西二十里，有溫山，出御薺。”

67) 위의 책, 75쪽. 《宋錄》載“新安王子鸞、豫章王子尙，詣曇濟道人于八公山，道人設茶茗，子尙味之曰：此甘露也，何言茶茗。”

68) 위의 책, 77쪽.

하였는데 차를 마시고 순채국을 좋아했다. 북지로 돌아와서는 다시 양고기를 먹고 우유 마시기를 좋아하자 어떤 이가 차와 우유를 비교하면서 어떤지 묻자, 왕숙은 차는 감히 우유와 비교할 수 없다”<sup>69)</sup>는 내용은 차에 담긴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위의 내용을 통해 위진남북조시대는 차 문화가 형성된 시기으로써 차의 재배에서부터 음다를 통한 정신세계를 향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 당대(唐代)의 차 문화

당대는 중국 차 문화의 발전기로서 운하를 통한 활발한 남북교류가 이루어짐에 따라 차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기 시작했으며, 또한 오랫동안 남쪽지역에 치우쳐 있던 차 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된 시기였다. 이는 통일국가의 문화적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차를 재배하는 지역이 쓰촨지역에서 후베이, 저장 등 강남으로 확산되어 차는 과세품목이 되었고 기호음료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경제적으로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진 이 시기에 다신(茶神)으로 불린 육우가 최초의 차 문화 서적인 《다경》을 저술하였다.

또한, 불교의 융성으로 차는 불교의 이미지를 함유하게 되었고, 대중적 문화 행위로 보편화되었으며, 음용 위주의 차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차 마시는 행위는 고도의 문화 행위로 발전하였다. 당대 중엽 이후 장강 중하류 다원은 차 생산량이 많이 증가하였고, 차의 제조와 기술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였다.

후저우(湖州)의 자순차(紫筍茶)와 창저우(常州)의 양선차(陽羨茶)는 진상품이 되었으며, 당대 후기 쓰촨 지역은 물론이고 강남 지역에 차만을 재배하는 전업농가가 많았음을 다음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강남 백성들의 생업 중에 차를 심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이가 많았다(伏以江南百姓營生,多以種茶爲業).…… 천리 내에 차를 업으로 하는 이가 7~8할이다.(千里之內,業于茶者七、八矣。)”<sup>70)</sup>

69) 陸羽의 앞의 책 79쪽. “茗不堪與酪爲奴”

이처럼 차는 대단위로 재배되어 상품으로 개발되었고 전문적인 경영형태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음다 문화는 차츰 보편화되었다.

구당서(舊唐書) 이옥전(李玉傳)에는 “차는 쌀이나 소금과 같이 일상적인 음식물이 되었다. 어느 곳을 가도 차 마시는 풍습을 볼 수 있다. 또 차는 쌀이나 소금과 달리 피로를 없애고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어 매우 중요한 음식이 되었다. 특히 민간에서 자주 마시고 있다.”<sup>71)</sup>고 기록하고 있다.

차 역사 전문가인 주자진(朱自振) 선생은 차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즉, 당대에 들어 한자 ‘茶’에서 한 획이 빠짐으로부터 ‘茶’라는 글자가 탄생했고, 육우가 《다경(茶經)》을 저술하고 나서부터 비로소 다학(茶學)이 나타났으며, 차가 세금을 거두기 시작한 후로 비로소 다정(茶政)<sup>72)</sup>이 정치적으로 지위를 차지했고, 차가 변방 지역으로 팔리기 시작하면서 차 무역과 변방 판매가 나타났다고 했다.<sup>73)</sup> 그리고 이 사실은 문화가 제대로 이루어졌음을 말해 준다.

당대는 남북조 시대와 달리 차를 다려서 마셨는데 조미료로 사용된 파, 생강, 소금 그리고 차탕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각 방면의 요소에 대한 인식이 더욱 심화되고 세분화되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수질이 차물의 질에 미치는 영향, 끓는 물의 정도가 차물의 질에 미치는 영향, 산지별 차잔이 차물의 색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또 당대에 시작된 ‘투다(鬪茶)’ 문화는 송대의 차 문화가 흥성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조성하였다. 당 오대를 거치면서도 차 문화는 계속 발전하여 ‘탕사(湯社)’<sup>74)</sup>라는 차 모임이 결성되고, 차 겨루기를 하는 투다 문화가 점차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는 여가 생활의 하나로써 조정의 관리나 문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차 문화의 교류와 보급, 차의 품질을 서로 비교하고 겨루는 행

70) 聞惟,〈舊唐書·職官志編纂及史源綜考〉,《文史》, 2022. 陳德用,〈從《全唐文》透視唐朝翻譯話語中的術語體系〉,《中國翻譯》, 2022. 35쪽에서 재인용.

71) “茶爲食物, 无异米鹽, 于人所資, 遠近同俗, 既怯竭乏, 難舍斯須, 田間之間, 嗜好尤甚. 茶于人如同米、鹽一樣不可缺少, 對於田間農家, 尤其嗜好.”

72) 《茶政》은 중국 역대 조정(朝廷)의 차일에 대한 행정관리 조치 또는 과세 정책을 일컫는다. 여기에는 주로 공차(貢茶), 차세(茶稅), 경차(榷茶)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73) 秦祖榮·朱自振 共著, 《中國茶業歷史資料選集》, 1981年, 農業出版社.

74) 양 화응(和凝)이 결성한 차 모임을 ‘탕사’라고 했다.



사를 말한다.<sup>75)</sup> 이 시기는 송대에 이르러 유행한 투다가 형성된 시기였으며, 예술로 승화된 차 문화가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시기였다.

차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시기는 남당(南唐)이었다. 이때는 과거 푸젠(福建)의 젠안(建安)에서 떡 모양으로 만들어진 단병차(團餅茶)의 모태인 연고차(研膏茶)를 만들었고, 뒤이어 납면차(臘面茶)<sup>76)</sup>를 만듦으로써 중국 차 역사에 큰 업적을 남겼다. 이후 북원 지역은 당대의 정통 차 문화를 계승하면서 수많은 명차(名茶)들을 생산하게 되었다.

오대에도 많은 다서(茶書)들이 저술되었지만 대부분 유실되어 전해지지 못했으며, 남아있는 것도 일부는 후대의 서적들 가운데 산재되어 있다. 오대의 다서로는 오대의 점다문화를 기록하고 있는 소이(蘇廙)의 《십육탕품(十六湯品)》과 모문석(毛文錫)의 《다보(茶譜)》 등이 있다.

### 제 3 절 차 문화 번영기

#### 1. 송대(宋代)의 차 문화

송대는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는데, 특히 각종 산업이 크게 발달하였으며, 국제무역에 힘입어 상업도 큰 발전을 이루었다. 이외에도 종교, 과학 기술, 문학, 문화 활동 등도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차 문화의 번영기를 형성하였다. 송대 백성들의 생활이 비교적 안정되었고 문학, 서예, 회화 등 각종 예술이 고도로 번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雅)’, 즉 우아한 정신적 경지를 추구하다 보니, 황제로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차는 쌀이나 소금처럼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간주되었다.

75) 梁子, 《中國唐宋茶道》, 陝西人民出版社, 1997. 157쪽.

76) 납면차는 청녹차 찜으로 떡 차에 속한다. 외형은 네모형, 원형 등 다양한 형태의 덩어리 모양을 하고 있는데 잎은 찌서 녹색을 유지하며, 차 가루의 빛깔은 반짝반짝 빛난다. 마실 때 으깨고, 끓이고, 찻물은 젓국수와 같이 녹는 왁스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1.1 차 문화 형성 배경

이 시기의 경제적 변화를 살펴보면 도시의 발달과 시장 개방의 정책으로 상업 활동이 자유화되면서 도시 인구가 급증하였으며, 이와 함께 차 수요도 증가하였고, 차의 유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송대의 중심 산업인 농업은 강남 지역의 개발과 더불어 생산력이 향상되었으며, 농산물 품목이 다양화되었고, 농산물이 상품화되었다. 차를 포장하고 상품화된 농산물들이 대운하를 통해 운송되면서 남북 무역이 발전하였으므로 시장경제도 활성화되었다.

당대에는 황족과 귀족, 사찰, 문인들을 중심으로 차 문화가 발전하였는데, 송대 조정 역시 과거 응시자들에게 차를 제공하다 보니, 당시 유학자들도 황실의 음다 풍습을 모방하였으며 술 대신 차로써 손님을 대접했다. 특히, 유학자들은 승려 혹은 도가들과 빈번한 교류를 하며 차 문화를 확산시켜 나갔다. 이처럼 차 풍속이 널리 전파되어 일반 백성들도 차를 마시기 시작했고 다회(茶會)와 다연(茶宴)의 성행함과 더불어 많은 다서들이 출간되었다.

그 외, 송대의 전매제도는 강남 차의 통제 정책에서 시작하여 쓰촨을 제외한 전국적인 규모로 시행되었다. 송대에 회수(淮水) 이남 지역에서 재배되었던 차는 전매 대상이었으며,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국방에 필요한 말을 구입하는 데 적극 활용되기도 했다.<sup>77)</sup>

## 1.2 음다 풍습과 명차

송대의 대표적인 음다 풍습으로 첫째, 차의 품격을 겨루는 ‘투다’가 있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당대 문인들은 창저우 이싱현(宜興縣)에서 생산되는 양선차(陽羨茶)와 후저우 고저산의 자순차(紫荊茶)를 두고 다산경회(茶山境會)라는 모임에서 품평회를 했다.<sup>78)</sup> 그리고 오대 때는 ‘탕사’라는 차 모임이 있었는데, 이때 차 맛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벌을 준 이후로부터 송대의 투

77) 송대 당시는 요(遼), 서하(西夏), 금(金)과 대치 관계에 놓여있었기에 말은 군사력에서 큰 역할을 했다.

78) 백거이(白居易)의 시구절을 통해 알 수 있다. “夜聞賈常州崔湖州茶山境會想美歡宴因寄此詩”.

다 문화로 이어졌다. 투다 풍습이 문인과 사대부 사이에 일반화되면서 하나의 도(道)를 즐기는 예낙(藝樂)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투다는 차의 품질과 다기의 발전을 이끌었으며 차 문화 발전에 결정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투다가 일상적인 생활행위로 자리 잡으면서 차의 품질이 향상되었고, 도자기 산업의 발전을 비롯한 송대 문화의 전반적인 고급화를 가져왔다.

그 다음으로, ‘점다법(點茶法)’을 들 수 있다. 점다란 덩이차를 뺑아 차 그릇에 넣고 끓인 물을 부어 차 술인 차선(茶筴)으로 휘저은 후 가루와 뜨거운 물을 섞어서 거품이 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가루차를 점다라고 한 것은 송대 휘종 황제가 《대관다론(大觀茶論)》<sup>79)</sup>을 저술한 데서 비롯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말차법(抹茶法)은 바로 송대의 점다법에서 유래한 것이다.

음다 풍습으로서 또한 다례(茶禮)를 들 수 있다. 《송회요(宋會要)》와 《송사예지(宋史禮誌)》에 보면, 송대 조정의 예절 가운데 다례가 제일 많이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사, 종묘, 신하에게 물건을 내릴 때, 신하들과 잔치를 베풀 때 모두 다례가 있었다. 이것은 당시 조정에 다례가 필수적이었던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송대 주희(朱熹)의 《주자가례(朱子家禮)》 권 5 〈제례〉 편에는 점다에 필요한 기물들과 제사 의례 때 점다법으로 차를 올린 기록<sup>80)</sup>이 나와 있는데, 이를 통해 송대 이전에는 다례가 없었으나 주자의 가례 이후 다례가 보편화되어 조상께 제사 지낼 때도 차를 중요한 제품(祭品)으로 쓴 사실과 손님 대접에서부터 관혼상제까지도 다례(茶禮)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각종 차와 전매제도의 흥성을 살펴보면 8세기 이후부터 공차제도와 전매제도가 시행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두 제도는 송대에 구체적으로 완성되었다.<sup>81)</sup> 특히, 용봉단차 제조 이후 고급 공차 제조는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79) 陳昇輝, 〈淺析《大觀茶論》中的美學思想〉, 《福建茶葉》, 2020.313쪽. 《大觀茶論·點》, 宋徽宗趙佶“點茶不一。而調膏繼刻,以湯注之,手重筴輕,无粟文蟹眼者,調之靜面點。”

80) 陸敏珍, 〈從朱子《家禮》到日用類書〉, 《中山大學學報》, 2022.102쪽. 《朱子家禮》 권5 〈祭禮〉 “…茶合 茶筴 茶盞托… 主任主婦奉茶 分進於考妣之前。祔位使諸子弟婦女進之。以茶饗神明: 喪禮: 護喪引賓入,至靈座前,哭盡哀,再拜焚香跪酌茶酒。”

81) 송대에는 재정적으로 군사나 국가에 대한 차마 무역이 중요시되었다.

## 2. 요(遼)·금(金)의 차 문화

송대와 더불어 요·금에서 차를 마시는 풍습의 보급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했다. 중국의 각 민족 사이에는 예로부터 정치, 경제, 문화 방면의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우호 교류는 민족 관계의 주류였으며, 송대 차 문화 역사는 바로 이 주류의 혈맥이었다.

송대의 차 마시는 풍속은 금과 대치해 있을 때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여진족에게 영향을 주었고 또 여진족은 후대에까지 영향을 주었다.<sup>82)</sup> 이로부터 북조에는 다례가 크게 유행하였는데, 금의 여진족은 조정에서 다례를 할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다례의 붐이 불었다.

요의 독특한 제도와 정책, 문화는 이질적인 유목사회와 농경사회라는 이중 구조에 대한 효율적인 조화와 융합이었다. 유목민이면서 농경과 수공업을 받아들여 사회, 경제적 기반을 다졌다. 한인(漢人) 위주의 농경민과 수공업자들을 유치해 한청(漢城)이라는 성곽도시를 만들어 농업과 수공업을 동시에 발전시켜 생산된 소금과 철을 주위 나라들에 수출했다.

요의 차 문화는 그들이 남긴 무덤의 벽화와 도자기 문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당대의 제도를 이어왔던 요는 차 문화에서도 당대 때의 차 도구들과 흡사한 모습들로 그려져 있다. 이런 벽화를 통해 볼 때 생전에 차를 즐겼던 요 사람들의 풍속을 짐작할 수 있다.

금은 건국 초기 장종 승안(章宗 承安) 3년에 송으로부터 차 수입을 제한하지는 않았다. 제량(帝亮) 정원(貞元) 5년 7월에 염초향차(鹽鈔香茶)에 대해 문인인(文引印) 조고사부(造庫使副)를 두고, 세종 대정 12년 12월 각장향차죄법(樞場香茶罪法)을 제정하고, 대정 16년 향차죄상격(香茶罪賞格)을 제정하면서 송으로부터 차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금이 차 수입을 제한한 까닭은 첫째, 송대의 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공급의 취약성 증대가 우려되고, 둘째, 송대 차의 밀수입 시 군사 기밀의 누설이 우려되며, 셋째, 차를 수입함으로써 송대의 재정을 도와준다는 이유에서

82) 남송 시기에 중국의 차 산업과 차 문화는 계속 발전했지만 북방의 금인(金人) 통치 구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차 문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송대로부터의 차 수입을 금지한 것이다. 조정은 자급자족을 꾀하면서 차 제조 및 생산을 감독하고 전매제도를 실시하였다. 금 조정은 차를 관청에서 만들어 전매하도록 하였으나, 장종 태화 5년에 이 정책을 폐지하였고, 민간의 차 제조와 판매를 허락하였다.

이백(李白), 두보(杜甫)로부터 시작되어 소동파(蘇東坡), 황정건(黃庭堅)에 이르기까지 당·송대 많은 시가 창작되었고, 그 뒤를 이어온 문인 원호문(元好問)의 시 《명음(茗飲)》에 금의 차 문화가 잘 드러나 있다.<sup>83)</sup> 이 시는 금대에서도 차 문화가 매우 성행했음을 잘 보여준다.

## 제 4 절 차 문화 변화기

### 1. 원대(元代)의 차 문화

#### 1.1 차 문화 형성 배경

원대는 다수의 중국 한인을 지배하기 위한 정책으로 몽골 제일주의에 입각하여 엄격한 민족 차별정책을 펼쳤다. 몽골제국은 동서 문화교류가 매우 활발하여 차의 전파가 세계화된 시기였다.

원대 통치자는 비록 한족이 아니었지만 《農書(농서)》와 《농상집요(農桑輯要)》를 편집하는 등 농업 생산에 유리한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농서에는 차나무 재배와 찻잎 제조를 중요한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차 산업에 대한 원대 통치자들의 관심을 느껴볼 수 있다.

83) 염숙·엄영옥, 앞의 책 165. 《명음(茗飲)》“宿醒未破厭觥船，紫笋分封入曉煎。槐火石泉寒食后，鬢絲禪榻落花前。一甌春露香能永，万里清風意已便。邂逅華胥犹可到，蓬萊未擬問群仙。” 금의 문인 원호문(元好問)은 지금의 산시성(山西省) 신저우시(忻州市)에서 태어났다. 14세 때 학천정(學天挺)에게 사사했는데, 당시의 풍조인 과거시험을 위한 공부에만 편중하지 않고 폭넓게 경자백가(經子百家)의 학문을 배웠다. 그의 시가 조병문(趙秉文)을 감동시켜 중앙에 진출하게 됨으로써 명성을 떨쳤다. 그 뒤 관직에 나아가 진평(鎭平), 내이상(內鄉), 난양(南陽)의 현령을 역임했다. 중앙으로 들어간 뒤로는 상서도성연(尙書都省掾), 좌사도사(左司都事)를 거쳐 좌사원의랑(左司員外郎)을 지내고 있을 때 금이 멸망했다. 이후 화베이(華北) 각지를 유랑하다가 여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독서인이 과거를 위한 학문에 열중하고 시문을 돌아보지 않았을 때, 견문과 천부적인 문학적 재능을 발휘하여 사치하지 않고 좋은 시를 지어 세상에 남겼다.

원대에 민간에는 산차(散茶)가 계속 발전하였으며, 공차(貢茶)는 여전히 단병(團餅)으로 지정되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조리와 양념에 차를 섞는 새로운 음료 방식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것은 몽골 유목민족의 생활 방식과 한족의 생활 방식이 서로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차에 보조 재료를 첨가하여 음용하는 것이 이미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원대의 차는 단차에서 산차로 점차 전환되는 시기로서 산차와 분차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는데, 이는 차 문화사적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이다. 당대와 송대에 유행했던 단차의 음다법은 번거로워 몽골인들 사이에서는 그다지 성행되지 않았다. 원대는 세조 지원 4년에 군량을 얻기 위해 송의 다법을 모방한 세다제도(稅茶制度)를 채택하였다. 세조 지원 5년부터 7년까지 각자 차 제도를 실시하였으나, 1271년부터 1274년까지는 차의 자유 매매를 허용하였다.

원대의 차 문화는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빠른 속도로 확산하였다. 《음선정요(飲膳正要)》 〈청차(靑茶)〉에서 “먼저 끓은 물을 부어 깨끗하게 여과시킨다. 어린 찻잎을 넣고 짧은 시간에 달이면 완성된다.”<sup>84)</sup>라고 음다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때에는 증청(蒸靑) 기술이 도입되었고, 산차를 끓여 마셨다. 왕진(王楨)의 《농서(農書)》 〈백곡보(百谷譜)〉에는 “따온 찻잎을 시루에 살짝 익을 때까지 찐다. 광주리에 겹치지 않도록 얇게 펴서 놓고 습기가 마르면 유념을 한다. 유념 후 불을 켜고 타지 않도록 건조시킨다. 대나무를 태워 왕골에 싸서 불을 지피고 불기운을 억제한다.”<sup>85)</sup>라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오늘날 증청 기술과 유사하며 원대의 제다법과 거의 비슷했다.

조맹부(趙孟頫)의 《투다도(鬪茶圖)》에서 차 마시는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 그림을 통해 산차 또는 분차를 마시는 모습을 담고 있으며, 투다가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대에 단차는 가공과정의 복잡함과 찻 향의 손실로 인하여 서서히 도태되어 갔다. 그러나 원대의 증청은 초청(炒靑)으로 이어지면서 다양한 종류의 발효차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84) 甄雪燕, 〈元代宮廷飲食譜—飲膳正要〉, 《中國衛生人才》, 2021, 72쪽. 忽思慧, 《飲膳正要》卷2 〈清查〉 “先用水滾過, 濾淨 下茶芽 小時煎成.”

85) 駱祖英, 〈王楨與《王楨農書》〉, 初中生之友, 2002, 76쪽. 왕진(王楨) 《농서(農書)》 〈백곡보(百谷譜)〉 探誌 “以版微蒸生熟得所蒸已用筐箔薄搏深揉之人焙勻布 火培令乾編竹爲焙裏菊 復之以收火氣”

## 1.2 음다 풍습과 명차

원대에는 증청(蒸靑)기술이 도입되면서 산차가 널리 유행하였다. 원대의 일반 농서인 왕전(王禎)의 《농서(農書)》에는 차와 음다법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유목민이었던 몽골인들은 대중적이고 간편한 산차(散茶)<sup>86</sup>를 즐겨 마셨다. 이처럼 산차가 보급되고 증청(蒸靑) 기술<sup>87</sup>이 도입되고 초청(炒靑) 제다법이 나왔고, 이로 인해 산차의 형태를 지닌 다양한 발효차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시기 차의 종류는 대개 명차(茗茶), 납차(臘茶), 말차(末茶)로 구분되는데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명차는 어린 싹(嫩芽)을 취해 끓는 물을 부어 냉각하고 다시 뜨거운 물을 부어 우려 마시는 방법으로 오늘날 산차의 다법과 유사하다. 말차는 말자차(末子茶)라고도 하며, 어린 싹으로 만든 차를 건조시켜 가루를 낸 차로 오늘날 일본의 산차인 연차(碾茶)는 가루 낸 말차와 유사하고 송대의 음다법인 점다법과 유사하다. 납차란 최고 차나무 상품의 어린싹만을 곱게 갈아 체로 쳐서 용뇌향(龍腦香)이나 골유(膏油)를 섞어 만든 고급 덩이차 모양으로 된 공차인데 황실에서만 마실 수 있다.

대덕(大德) 6년에는 우이산(武夷山)의 차를 황실에 납품하였으며 우이산 사곡(四曲)에 다원을 추가로 지정하면서 우이산의 공차량은 증가했지만 져저우(建州)와 베이웬(北苑)의 공동 다원은 쇠퇴하였다. 하지만 송대의 덩이차 점다법은 원대 황실에서도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우이산 다원에서 생산하는 차들은 황실에 납품하는 공차로 다른 차와는 차별화되었다. 송대에 들어 우이산의 차나무는 베이웬(北苑)이라 명명되었고 황실에 납품되기도 했다.

송대에 저술된 다서(茶書)는 모두 25 여종으로 그 가운데 14 여종의 다서가 우이차에 대한 서적이었다. 송대의 사상가 주희(朱熹)는 <영무이차(詠武夷

86) 산차에 대한 기록으로 《문헌봉고(文獻通考)》가 있는데, 차에는 편(片)과 산(散)이 있는데 편은 차이고 산은 찌지 않고 발린 차이다.

87) '蒸靑'은 증기를 이용해 차를 찌는 제다기술로 얻은 찻물을 말한다. 차찌는 당송시대에는 비교적 성행하였는데, 당시 청찌 제조법은 불교의 경로로 전해지기도 하였다. 일본에서는 이런 차를 만드는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일본에서 성행하는 말차가 바로 청녹차찌 중의 하나이다.

茶)》라는 시에서 무이정사(武夷精舍)를 짓고 주변에 차밭을 조성하고, 벗들과 무이암차를 마시며, 자연과 더불어 학문에 정진하였음을 술회하기도 했다.<sup>88)</sup>

전국에서 생산된 한 해 동안의 공차량이 4,000 근이었는데, 그 가운데 우이산과 젠저우 지역의 공차량이 2,000 근이 넘었음을 볼 때 푸젠성 우이차의 명성을 짐작할 수 있다.<sup>89)</sup>

## 2. 명대(明代)의 차 문화

### 2.1 차 문화 형성 배경

명대(明代)가 열리면서 차 문화가 새로운 변화기를 맞이하였다. 명 태조朱元璋(朱元璋)은 서민 출신으로 농민들과 생활하면서 누구보다도 단차(團茶)를 만드는 데 백성들의 노력과 애환을 잘 알고 있었다.

심덕부(沈德符)의 《야획편(野獲編)》 <공어차(供御茶)>에는 “건국 초 각 지역에서 납부하던 차는 푸젠의 젠저우와 장쑤성 이싱현에서 생산되는 차의 품격을 으뜸으로 삼았다. 이때는 오히려 송대의 법도를 그대로 따라 진상하는 것은 모두 멧돌질하고 빛을 내서 크고 작은 용단차를 만들었다.<sup>90)</sup>

홍무 24년 9월에 이르러 “상감은 민중들의 수고를 중히 여겨 단차 만드는 것을 금지시키고 산차를 진상하게 하였다”<sup>91)</sup>라는 기록이 있는데, 홍무는 조

88) 王太·彭小元·辛燕·胡國明·尙巾,〈武夷高處是蓬萊採取靈芽于自栽〉,《農產品市場周刊》, 2017, 17쪽. 朱熹《詠茶》의 시는 다음과 같다.

武夷高處是蓬來 (우이산 높은 곳이 봉래산이라)  
 採取靈芽手自栽地.(신령스런 차 따다가 손수 가꾸었네.)  
 僻芳菲眞自在 (외진 땅에 꽃향기는 절로 나는데)  
 谷寒蜂蝶未全來. (추운 골짜기에 벌, 나비 아직 날지 않네.)  
 紅裳似欲留人醉 (미인이 나그네 유혹하여 머물게 하려는 듯)  
 鐘鐘何妨爲客開. (비단 휘장 활짝 길손에게 열어주네.)  
 咀罷醉心何處所 (차 맛보고 취한 마음 어디로 가나)  
 遠山重疊翠成堆. (먼 산 굽이굽이 푸른 차 밭이라네.)

89) 염숙·엄영옥, 앞의 책 175쪽.

90) 위의 책, 185쪽.

91) 朱姍,〈万歷野獲編的史料來源与“小說家筆法”研究〉, 北京大學碩士學位論文, 2013, 3쪽. 沈德符



서를 내려 우려 마시는 포다법의 시대를 열었다. 이 칙령으로 400 여년 동안 중국 차 문화를 이끌어 왔던 단차 점다법은 중원의 차 문화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초청 방식으로 만든 산차의 등장은 다양한 발효차인 우롱차, 홍차 등을 탄생시켰다. 우롱차에 대한 기록은 다음의 청대 육정찬(陸廷燦)의 《속다경(續茶經)》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이산의 차를 따서 바람과 햇볕을 적당하게 쬐 수 있는 곳에 대나무로 만든 발이나 넓은 광주리에 균일하게 고루 펼쳐 놓는데 이를 쇠청(曬靑)이라 한다. 찻잎이 점점 푸르기를 기다린 후 덥고 불에 말린다. 그리고 쪼서 또 불에 말려 완성한다. 송뤄(松羅)와 룡징(龍井)은 덥고 불에 말리지 않기 때문에 그 색은 깨끗하다. 우이차(武夷茶)는 덥고 건조시키기 때문에 완성된 찻잎을 보면 반은 푸르고 반은 붉다. 푸른색은 덥은 것으로 인한 것이며 붉은색은 건조하여 생긴 색이다. 찻잎을 따서 펼쳐놓고 이것을 모아 흔들어주면 향이 나온다. 흔들 때 너무 빨리하거나 느리게 해서 안 된다. 덥고 불에 쪼어 말리는 것을 반복하면서 그 속에 있는 쇠한 찻잎이나 줄기와 꼭지는 버리고 균일한색이 되게 한다.”<sup>92)</sup>

《다설(茶說)》은 청대 초기에 저술된 책으로 이를 통해 우이차의 독특한 제다법인 우롱차의 제다법이 이전에 이미 형성되었을 알 수 있다.

명대에는 송대의 차마 무역 제도를 이어받아 명대 초기에 서북 변방 지역인 산시성(陝西省)에 여섯 곳의 다마사(茶馬司)<sup>93)</sup>를 두었으며 추가로 여러 곳에 설치하였다. 성조 영락 3년 요동의 개원(開原)과 광녕(廣寧)에 마시(馬市)를 두어 군마를 공급하였으며, 열하(熱河)의 개평(開平)과 무순에도 마시를

《万歷野獲編·補遺》“…罷造龍團惟採茶芽以進…”.

92) 林更生, 陸廷燦編, 《續茶經—古茶書解讀之七》, 《福建茶葉》, 2011, 55쪽. 陸廷燦《續茶經》“王草堂의 〈茶說〉…武夷茶採茶後以竹筐氣鋪架於風日中名日晒靑候其靑色漸收然後再加炒焙陽羨片只蒸不炒火焙以成待蘿肥開皆炒爾不焙故其色純獨武夷炒焙兼施烹出之時半靑半紅靑者乃炒色紅者乃焙色茶探爾捷香氣發越郎炒過時不及皆不可既炒既焙復揀去其中老藥枝蒂使之—色”.

93) 다마사(茶馬司)로는 공창부(鞏昌府)의 낙타항(駱駝巷), 초자보(稍子堡), 고교(高橋), 화찬옥(火鑠峪)과 임도부(臨洮府)의 복양(茯恙), 영원(寧遠)이다.

개설하였다. 명대 초기에는 무역 시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신종(神宗) 만력(萬曆) 4년에 들어서에는 다마사마다 무역 시기를 정하였다.

이는 이민족 사이에서 차 수요에 대한 경쟁과 말에 대한 공급 경쟁을 벌여 차 가격을 대폭으로 올리는 한편 무역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었고, 명대의 차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 2.2 음다 풍습과 명차

명대에는 초청 제다법의 등장으로, 초기에는 원대에 이어 단차를 제조하여 공차를 진공하였으나, 산차의 제조는 찻잎을 찌지 않고 뜨거운 솥에 넣어 뒤집으며 유념을 하고 다시 솥에 덫거나 부채로 부쳐 건조시키는 오늘날의 제다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생산되었다. 이전까지의 증청 위주의 제다 방식에 초청방식의 새로운 방법이 더해짐으로써 다양한 차 종류 즉 녹차, 백차, 홍차, 황차, 흑차, 화차 등 현대에 응용되는 6대 차가 나오게 되었다.

덩이차(團餅茶)<sup>94</sup>는 제다법과 음다법이 번거롭고 까다로운 반면에 산차는 간편하다. 덩이차는 제작할 때 지나치게 쓰고 짜서 차의 고유한 맛과 향기가 없어지는 반면, 산차는 증청과 초청법으로 맛과 향기가 다양한 차의 생산이 가능하다. 덩이차는 가격이 매우 비싸고 생산량도 한계가 있는 반면 산차는 덩이차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대량의 다양한 차를 생산할 수 있다. 발효차의 경우 녹차보다 장기적인 저장이 용이하여, 녹차에 비해 편하게 응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변방 소수민족은 여전히 덩이차를 응용하였다.

문헌 속의 초청 방식으로는 장원(張源)의 《다록(茶錄)》에 “솥이 매우 뜨거워진 후 찻잎을 넣고 빠르게 덫는다. 불기운을 약하게 해서 안 되고 익기를 기다렸다가 바야흐로 불을 물리고 거두어 광주리에 담아 가볍게 여러 번 비빈 후 다시 솥에 넣어 점점 불을 줄이고 알맞게 불을 쪄며 말린다.”<sup>95</sup>라고

94) 여기에서 덩이차와 단병차(團餅茶) 두 용어가 서로 넘나들며 출현하지만, 같은 의미이다.

95) 唐俊峰, 〈洞庭碧螺春與張源茶錄〉, 《天工》, 2018, 158쪽. “將茶一斤半焙之, 候鍋極熱, 她茶急炒, 火不可緩. 待熟方退火, 撒入篩中, 輕團那數遍, 夏下鍋中. 漸漸減焙于爲度. 中有玄微, 難以言顯. 火候均停, 色香全美, 玄微未究, 神味俱疲.”

기록되어 있다.

허차서(許次紆)의 《다소(茶疏)》에는 “처음 만 생차를 채취할 때는 향이 나지 않기 때문에 화력으로 향을 만들어 낸다. 솥은 반드시 빛나게 닦아 찻잎을 따는 대로 덫는다. 한 솥에는 겨우 4냥(150g) 정도를 담아, 먼저 약한 불로 가볍게 덫다가 강한 불로 다시 덫는다. 이때 손에는 나무 손가락을 끼고 재 빠르게 손으로 움켜 뒤집혀 익힌다. 반 정도 익은 것을 기준으로 삼아 조금 기다리면 향이 나온다.”<sup>96)</sup>라고 기록되어 있다.

나름(羅廩)의 《다해(茶解)》에는 “차를 덫을 때는 한 움큼 정도가 적당하다. 솥이 데워지면 찻잎을 넣고 소리 날 정도로 빠르고 고르게 덫는다. 그리고 대광주리 위에 놓고 얇게 펼쳐서 부채로 식힌다. 그리고 조금씩 비벼가면서 다시 덫는다. 약한 불을 사용하여 비취색으로 변할 때까지 따뜻하게 건조한다.”<sup>97)</sup>라고 기록되어 있다.

고계(高啓)의 〈채다시(採茶詩)〉에 “돌아오는 길에 맑은 향이 아직도 손에 남아 있네. 고급품은 먼저 태수에게 보내고, 죽로에서 건조한 햇차는 아직 뛰어나지 못하고, 대마구니에 채워서 호남의 상인에게 팔고, 산사람은 벼와 기장을 심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매년 의식(衣食)은 봄바람에 달려 있다네.”<sup>98)</sup>라는 시구를 통해서도 명대 산차의 인기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모두 초청을 소개한 내용으로 유념과 건조 단계를 거쳐 산차를 만드는 상황을 말하고 있다.

### 3. 청대(清代)의 차 문화

#### 3.1 차 문화 형성 배경

96) 常俊玲,〈茶疏与明代茶事美學〉,《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 2018. 95쪽. “生茶初摘, 香气未透, 必借火力以發其香. 鑪必磨瑩, 旋摘旋炒. 一鑪之內, 僅容四兩. 先用文火焙軟, 次加武火催之. 手加木指, 急急抄轉, 以半熟爲度. 微俟香發, 是其候矣.”

97) 呂維新, 羅廩對明代茶葉科學技術的貢獻, 茶葉, 2003, 117쪽. 羅廩, 《茶解》〈制茶〉炒茶, 鑪宜熱; “焙, 鑪宜溫, 凡炒止可一握, 候鑪微炙手, 置茶鑪中札札有聲, 急手炒勻. 出之箕上, 薄攤用扇扇冷, 略加揉□. 再略炒, 人文火鑪焙干, 色如翡翠. 若出鑪不扇, 不免變色”

98) 嚴肅·嚴英·嚴英, 앞의 책, 188쪽. 高啓, 〈採茶詩〉“雷過溪山碧云暖, 幽叢半吐槍旗短. 銀釵女兒相應歌, 筐中摘得誰最多? 歸來清香猶在手, 高品先將呈太守. 竹爐新焙未得嘗, 籠盛販與湖南商. 山家不解種禾黍, 衣食年年春雨.”

청대에 들어오면서 다연이 황실에까지 전해졌는데, 이때의 다연은 차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차를 이용한 음식들이 함께 준비되었다. 서가(徐珂)의 《청패류초(淸俾類鈔)》에는 차를 이용한 음식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중국의 회화소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통해 다연의 풍속을 알 수 있다.

강희제(康熙帝), 건륭제(乾隆帝), 옹정제(雍正帝) 등 청대의 황제들은 모두 차를 즐겨 마셨다. 예컨대, 강희제는 은잔을 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며 명천(名泉)에서 물의 우열을 판가름하는 품천(品泉)의 대가였다. 이를테면, 강희제는 그의 시에 “살그머니 뜬 중령천의 물은 예로부터 으뜸가는 샘물이었지. 장마철의 비처럼 은택이 일어 이 강산을 두루 적실 수 있다면”<sup>99)</sup>이라 했다.

건륭제(乾隆帝)는 “옹정의 햇차를 옹정 샘물로 일가의 품미대로 차를 달이네, 갓 돌아난 새싹 난석에서 자라서, 때가 되면 곡우전에 말린다네. 어찌하여 용단봉병(龍團鳳餅)을 천자의 차라고 자랑하니 귀 기울이고 연 꽃술 같은 작설차로 마음을 적시누나. 변재스님하고 부르면 금방 나오실 듯 미소 지어 날 받기며 전과 다름없이 선문답하시리.”<sup>100)</sup>라는 시를 짓기도 했는데, 서호용정(西湖龍井) 차나무 18그루를 임금의 차(御茶)로 봉하였으며, 그로부터 차의 명성이 높아졌다.

또한, 가경제의 “열두 조목을 거친 으뜸가는 차, 아침에 마시는 건 월단차라 하네. 죽로에 센 불을 지피니 돌솥에 물 끓어 어안(魚眼) 해안(蟹眼)이 천천히 떠오르고, 깃발과 창 같은 어린 차 싹이 보이네. 한 사발에 맑은 흥취 일어나 봄기운이 추위를 물리치겠네.”<sup>101)</sup>라는 시를 통해서도 청대의 황제들이 차와 관련된 시를 남길 정도로 차를 즐겼음을 알 수 있다.

성조 강희 44년(1705년)에 차마(茶馬) 관리자 직종을 추가하여 차와 말에 대한 순찰을 시행했다. 관리자들은 재량(裁量)하여 간쑤(甘肅)의 순무(巡撫)까지 겸하여 관할하도록 함으로써 차마 무역은 차와 말을 관할하는 업무로 양

99) 위의 책, 200쪽. 愛心覺羅 〈試中冷泉〉 “緩酌中冷水, 曾傳第一泉。如能作霖雨, 沾洒遍山川。”

100) 위의 책, 201쪽. 愛心覺羅 弘歷, 《坐龍井上烹茶偶成》 “龍井新茶龍井泉, 一家風味稱烹煎。寸芽生自爛石上(見陸羽茶經), 時節焙成谷雨前。何必鳳團誇御茗, 聊因雀舌潤心蓮。呼之欲出辨才在, 笑我依然文字禪。”

101) 위의 책, 202쪽. 愛新覺羅 顯球 《嘉慶御制壺銘茶詩》 “爐添活火, 石鉢沸涼湍。魚蟹眼徐漂, 旗槍影細攢。一甌清興足, 春盎遊輕寒。”

분되었다.

이처럼 청대 중반까지 궁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차를 마시는 일은 일상화가 되었고 차와 말을 관할하는 업무가 양분된 후 차는 서양 각국과 통상을 시작하였고 수출량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영국, 미국, 러시아 등은 당시 차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었는데, 이로부터 이 시기 차 문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차나무는 특성상 잡종이 쉽게 이루어지는데 청대에 들어 삼목 기술의 개발로 우량 품종의 대량 번식이 가능해짐으로써 차 생산과 품질개량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또한 차 문화는 차나무의 경신과 전지 기술의 발달, 차 생산의 기계화와 과학화가 이루어지면서 차나무 재배 기술이 발전하고 차 생산 지역도 더욱 확대되었다.

### 3.2 음다 풍습과 명차

청대는 청차와 같은 반 발효차의 확산으로 뚜껑이 있는 찻그릇(盖碗)이 보편화되었다. 중엽종의 찻잎을 찻그릇에 우린 후 잔과 뚜껑을 엇비슷하게 열어 마실 때 우려진 잎이 크기 때문에 잎은 걸러 나오지 않고 우린 차만 마실 수 있어 다호(茶壺)와 찻잔의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었다. 우려진 잎의 모양을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양이 좋지 않으면 뒷면만 감상할 수 있었고, 주둥이가 넓은 찻그릇은 향이 쉽게 흡수되지 않아 차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우려서 마셨다.

청대의 청차는 푸젠성에서 생산되는 3대 다류의 하나로 간주되었으며, 육찬정의 《수견록(隨見錄)》에는 무이암차와 주차(洲茶), 공부차(功夫茶), 소종(小宗) 등이 언급되어 있다. 18세기 청차의 기술이 타이완 우롱차를 개발하였으며 19세기에는 인도, 스리랑카로 넘어가 홍차의 시조가 되었다. 최초의 홍차는 무이산의 정산소종(正山小种)에서 출발한다. 안후이성, 장시성 등에서도 홍차가 발전하여 기문(祁門) 홍차가 등장하였으며, 이는 세계 3대 홍차 중의 하나가 되었다.

## 제 5 절 차 산업 부흥기

### 1. 중국의 개혁개방과 차 산업

#### 1.1 차 산업의 발전배경

덩샤오핑은 합의, 타협, 설득 등의 방법으로 중국의 정치와 경제생활 모든 분야에서 중대한 개혁과 개방을 통한 실용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경제 운영에 있어서 지방분권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효과적이고 통제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합리적이며, 융통성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다. 고등교육을 받아 중국 발전의 선봉에 설 기술자와 경영자들을 양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많은 기업체를 중앙정부의 통제와 감독에서 벗어나게 했고, 공장 경영자들에게는 생산량을 결정하고 이윤을 추구할 권한을 부여했다. 대외정책에서는 중국 기업에 대한 외국의 투자를 허용했다. 이러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1980 년대에 들어 전통적인 명차가 복원되기 시작했다.

1990 년 덩샤오핑 사임 이후, 장쩌민 시대가 열리고 선진화된 생산력을 바탕으로 선진문화 정책을 펼쳤다. 이때는 거대한 차 산업이 중흥을 이룩한 시기였다. 대단위 차 재배지가 조성되었고, ‘차 가공 공장’이 설립되었다. 현대식 기계화로 대량 생산, 포장변화, 운송이 가능해졌으며, 신제품 차나무 개발로 호평 받는 신차가 생산되었다. 거대한 차 유통시장이 베이징의 마론탈(馬連道), 상하이의 따통루(大統路), 차오빠오루(漕宝路) 등에 형성되었다.

찻집이 다시 부활하여 사람들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장소가 되었으며 중국인의 염원이었던 홍콩을 1997 년에 돌려받았고, 1999 년에 포르투갈로부터 마카오를 되찾아 왔다. 이때에는 아편 전쟁 이후 서양 문화에 동화되어 과일향이 담긴 홍차를 선호했던 것에 비해 순수한 홍차 생산에 주력하였다

2000 년대로 접어들면서 원자바오 총리는 농업, 농촌, 농민 등 3농 문제를 국정의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이는 13억 명의 인구 중 9억명 이상이 살고 있는 농촌이 발전하지 않으면 경제 전체가 발전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이에 맞춰,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난제였던 국영기업 개혁에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

었다. 개방화된 마인드를 지녔던 후진타오나 윈자바오를 비롯한 경제 수장들은 주룽지 시절로부터 국영기업 문제에 전념해 왔기 때문에 국영기업 개혁 방안 가운데 외국기업과 민간기업에 국영기업을 매각하는 방식을 택하자 신흥 재력가들이 부각되었고, 이들에 의한 차원 높은 소비 수요가 창출되면서 차 산업 역시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 1.2 차 산업 현황

1978년 이후 40년 동안의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인들은 큰 변화를 느꼈고 차 산업계도 더불어 변혁을 겪었다. 현대 중국은 차 산업 부흥기를 맞이하여 백차, 녹차, 청차, 황차, 홍차, 흑차, 화차 등 다양한 차 종류를 생산 유통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차 품종의 개발과 제다 회사의 연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에는 차의 재배, 생산, 유통, 소비 등 면에서 변화 발전을 가져왔다. 이를 테면, 재배에 있어서는 집단 재배에서 다원 청부 재배, 농가로부터 회사와 농가가 합작하는 형태로 발전했으며, 생산에 있어서는 소규모 작업장에서 선두 기업으로 발전하여 집중적으로 차를 생산·가공하였다. 유통에 있어서는 국영 전매에서 점차적으로 개방되어 판매 주체도 국유기업에서 주식제로 전환되었으며, 소비자 측면에서는 소비자의 생활수준이 끊임없이 향상됨에 따라 차의 제품 유형, 판매 방식도 시대와 함께 꾸준한 발전을 이루었다.

또한, 1984년 중국 정부에서 제정한 75호 문서인 <차 구매 정책 조정과 유통 체제 개혁 의견 보고>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차 업계에 의미를 둔 정책으로 오늘날 중국 차 산업은 민영경제가 주체를 이루게 되었다. 1988년에 이르러 중국의 차 산업은 생산량 56.9만 톤, 수출량 20.6만 톤으로 성장하여 다시 차 생산의 강대국으로 자리 잡았다. 2006년에는 93.5만 톤을 생산함으로써, 인도의 차 생산을 앞지르게 되어 세계 최대 차 생산국의 위상을 되찾았다.

중국 정부는 차 산업과 차 문화가 쇠락하던 혼란기인 20세기 초에도 다학과 다학 교육에 대한 기틀을 준비하였다. 오늘날에는 직업훈련학교에서부터

전문교육 연구기관이 상호 연계되어 교육과 충분한 연구 인력으로 차의 재배학, 제다학, 가공기계, 품평과 검사,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정돈된 자료와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2008년 한해 중국 차 재배지 면적은 135만 헥타르에 이르렀고, 차 생산량은 102만 톤에 달해 단연 세계 1위였다. 2008년 한해 차 잎 수출량은 28.7톤, 수출액은 5.47억 달러를 차지해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냈다.<sup>102)</sup> 하지만 이는 중국 토산품 수출액의 6%에 해당하여 여전히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중국 차 산업의 주요 문제점은 차 생산의 표준화와 위생체계가 매우 낙후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품질이 좋은 차의 생산량이 많은 것에 비해 좋은 브랜드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중국차는 국제시장에서 영향력과 지명도가 낮은 편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EU와 일본 등 수입국에서의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이 점차 까다로워지면서 중국차에 대한 강도 높은 검열이 이뤄지고 있는 등 중국의 차 수출에 적신호가 켜지기도 했다.

## 2. 현대 중국의 차 산업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정부는 일련의 정책 지원과 차 산업 발전을 장려했다. 2021년 2월 농업농촌부로부터 제정된 <중국 중앙정부, 국무원 2021년 농업 농촌 중점 업무 실행 의견>에서는 농산물 유통 체계의 건설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일련의 정책을 제정하였다. 예컨대, 농산물 창고는 저장 신선도를 유지하고, 체인 물류 시설 건설 공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채소, 과일, 차, 한약재 등 싱싱한 농산물 창고와 신선도 유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밭에 소형 창고와 신선도 유지 체인 시설을 건설하며, 여건이 되는 곳에 산지 저온 직매 배송 센터를 건설하도록 장려했다.<sup>103)</sup> 이 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차 산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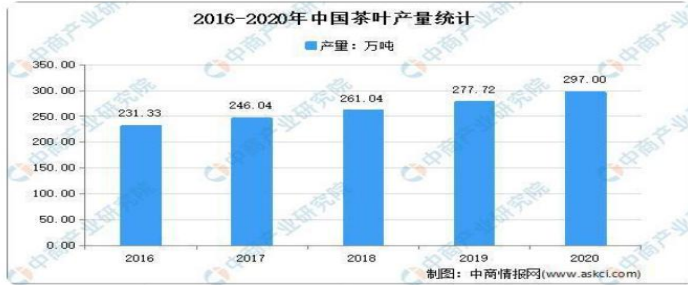
102) 위의 책, 213쪽.

103) 2021년 2월 農業農村部 <農業農村部關於落實好黨中央、國務院2021年農業農村重點工作部署的實施意見>, “全面實施農產品倉儲保鮮冷鏈物流設施建設工程, 加大蔬菜、水果、茶葉、中藥材等鮮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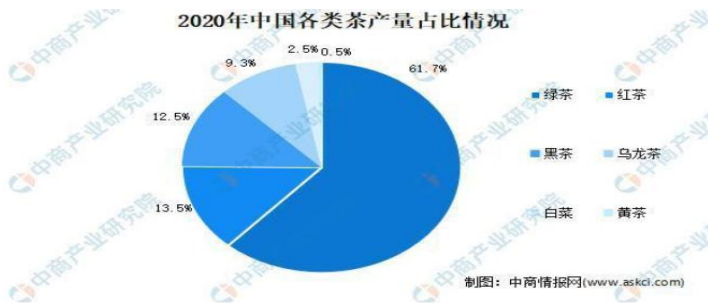
2016년 이후부터 중국의 차 생산량은 안정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차 생산량은 2016년의 231.33만 톤에서 2020년의 297만 톤으로 증가했고, 2020년은 전년도보다 19.28만 톤, 전년도 동기 대비 6.94% 증가했다. 이를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数据来源: 中商产业研究院数据库

<도표 1> 2016-2020년 중국 차의 생산량

2020년에 중국의 6대 차류 중 녹차, 우롱차 생산량은 계속 안정적으로 증가했지만, 전체 생산량 비중은 약간 아래로 조정되었다. 홍차, 백차, 황차의 생산량이 급증하여 전체 생산량 비례가 상승하였다. 이를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数据来源: 茶叶流通协会、中商产业研究院整理

<도표 2> 2020년 중국 차종별 생산량 분포

活農產品倉儲保鮮補貼力度，建設一批田頭小型倉儲保鮮冷鏈設施，鼓勵有條件的地方建設產地低溫直銷配送中心。”

위의 수치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생산량 비중은 동기 전년에 비해 상승세를 보였다. 이런 현상은 차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강력한 추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만약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더라면 더 큰 상승세를 보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차 도매시장의 각 차류 거래량 구조는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다. 현재 중국에서 소비량이 가장 많은 차는 녹차, 홍차, 우롱차 등 세 가지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차잎 국내 판매량은 220.16만 톤으로 작년보다 17.61만 톤 증가했고 전년도 동기 대비 8.69% 증가했다. 2020년 중국의 차 내수 평균 가격은 131.21 위안/킬로그램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2.98% 하락했다. 2020년 중국 차의 국내 판매 총액은 2888.84억 위안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5.45% 증가했다. 이를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 3> 2016-2020년 중국 차의 소비량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의 소비량도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람들의 차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전 세계 160개 이상의 국가와 30억 인구가 음다 습관을 즐기고 있다. 국제경제와 문화 교류가 깊어지면서 중국차와 차 문화가 세계 소비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제 4 장 중국 차 문화의 기능과 경제·사회적 영향

### 제 1 절 차 문화의 기능

차가 인간의 노동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차 문화는 차를 매개체로 하여 문화를 형성하고, 전파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차 문화는 차와 문화의 유기적인 융합으로서, 일정한 시기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차 문화는 전통문화가 융합된 구성 요소로서의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당(唐)대 이후 차를 마시는 풍속이 동아시아를 시작으로 여러 방면에 문화적 영향을 주었음은 우리가 주지하는 바이다. 무엇보다 식생활과 경제면에 막대한 이익을 수반하면서 차 문화는 전 세계로 전파되었으며, 그 역할 또한 더욱 확대되어 보다 다양한 차 생활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sup>104)</sup>

본 장에서는 차의 문화적 기능과 교육적 기능 및 심미적·실용적 기능을 통해 중국 차 문화의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문화적 기능

중국의 차 문화는 중국의 전통문화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차 문화는 형성 발전하는 과정에서 점차 정신문화의 범주로 부상하였는데, 그야말로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이 하나로 융합된 복합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차 문화의 사회적 기능은 다양하다. 이를테면 다덕(茶德)을 발양하고, 다도(茶道)를 전파하고, 문화예술 발전을 촉진하고, 몸과 마음을 완벽히 경지에 이르게 하고, 인간의 자연적 기질을 도야하여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승화시키고, 민족 단결과 사회의 진보를 촉진하고, 경제 무역 발전을 촉진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차 문화는 문화에 내포된 사회적 기능, 교육적 기능, 심미적 기능, 상호적 기능 등 문화의 일반적인 기능을 모두 포함

104) 정동효·윤백현·이영희, 《차생활문화대전》, 홍익재, 2012. 115쪽.

하고 있는 셈이다.

## 2. 교육적 기능

차 문화의 교육적 기능은 사람들의 도덕과 행동 규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흔히 차는 예의와 순결의 화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래서 참되고 선하며 정신적인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차 문화는 질서, 인애, 경의, 우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차로써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할 뿐만 아니라 윤리를 밝히고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차를 ‘군자의 음료’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품(茶品)은 인품과 연결되며, 차의 맛을 음미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만큼 도덕적 수양도 높음을 말해준다. 차는 또 청렴과 검소함의 상징으로서 ‘청차(靑茶) 한 잔’으로도 사회 풍토를 호전시킬 수 있는 교육적 역량을 발휘한다.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된 다덕(茶德)은 자고이래로 아름다운 성품의 대명사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차 문화는 다덕을 중심으로 인간의 집단적 가치를 중시하고 헌신적인 봉사를 주창하며,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또 의리를 지킴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조화시키는 것을 중시하고, 사람에 대한 존경을 제창하며, 마음과 몸을 완벽한 경지에 이르게 하여 덕을 쌓을 것을 주장한다. 더 나아가 사람들의 마음의 평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현대인의 정신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인간성을 고양시키는 최고의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 3. 심미적 기능

차 문화의 심미적 기능에는 다양한 차 문화 기능의 일종으로서 주로 차와 관련된 언어, 정서, 심미적 의미 등이 포함된다. 다사 활동에서 차나무의 재배, 다원(茶園)의 아름다운 곡선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색채 변화, 차를 만드는 과정과 포장 운송, 다예의 공연, 다탕의 색깔과 향기, 다기의 문화적 의미, 다양한 차 문화의 예술작품, 다원의 정경 및 양질의 차를 우려내는 수질

등은 다인과 다인의 정서적 가치 관계와 창조적인 실천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구축되었다. 이러한 차 문화 활동에서 나타난 형상적인 가시적 외형에서 심리적 정서에 이르기까지 모두 차 문화의 정신과 풍부한 심미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차 문화는 실천성을 지닌 심미적 문화로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그 심미적 의미도 끊임없이 변화하며 풍요롭게 된다. 이를테면, ‘다통육예(茶通六藝)’ 곧 차는 음악, 시가, 회화 등의 예술과 통하고 연결되어 아름다움을 더한다. 그리고 그 자체로서도 아름다움의 화신이다. 찻잎의 형태, 향기, 색깔, 맛이 매력적이며, 조형적이고, 색채가 풍부하며, 향긋하고 그 맛은 감미롭다. 또한, 찻잎의 이름 또한 아름답고 감동적이며 시적인 정취와 그림 같은 아름다운 미감이 담겨 있다.<sup>105)</sup>

#### 4. 실용적 기능

실용적 기능은 경제적인 수익을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제적 기능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시장경제 개혁이 끊임없이 시행됨에 따라, 상품의 유통은 갈수록 자유화된 경쟁 태세를 보이고 시장경제의 영향을 점점 더 크게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상품경제 경쟁에서 상품의 다매(多賣)와 속매(速賣)의 마케팅 문화가 생겨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성과도 만만치 않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실용적 기능은 첫째, 차 제품의 문화적 가치는 물론 이에 따른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른바 문화적 부가가치는 제품을 제외한 모든 부가 요소를 말한다. 이것은 대중들의 문화 심리를 이용해서, 품질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함으로써 제품의 가치를 높이고 제품의 문화적 특징을 증가시킨다. 생산 제품은 일시적이지만 문화는 영원한 것과 마찬가지로 차는 음료에 지나지 않지만 문화적 의미로 인해 제품의 부가가치는 다른 제품보다 훨씬 더 높다. 예를 들면, 중국 푸젠성에서 열린 우롱차 차왕(茶王) 선정 대회에서 ‘차왕’으로 불린 차는 100g이 수만 위안에 경매되었다.<sup>106)</sup> 이밖에, 자

105) 육예는 주로 여섯 가지 예술을 뜻하는데, 이는 차 마실 때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 육예에는 거문고(琴), 기(棋), 서(書), 그림(畫), 시(詩), 곡(曲)과 금석고물의 수집과 감상 등을 말한다. 육예 가운데서도 특히 음악과 서화를 중요시 한다.

스민차(茉莉花茶) 차왕 대회에서 2021년 10월 푸젠성 푸저우시에서 개최된 차왕 6명, 금상 18명이 선발되었는데, 이들의 차 또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가로 판매되었다.<sup>107)</sup> 이처럼 차는 물질적인 제품이지만, 차 문화의 존재는 우리가 차를 판매하는 동시에 하나의 문화로써 판매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음다를 통해서 심리적 만족과 미적 향유를 얻을 수 있기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사려고 한다.

다음으로, 판매를 촉진하는 기능이다. 차는 소비 상품의 일종으로 사람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매슬로우(Abraham Maslow, 1908~1970)의 “인간 욕구 위계 이론(Need Hierarchy Theory)”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발달순서가 고정화되어 있어 그 강도에 따라 생리적 욕구, 안전적 욕구, 귀속과 사랑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등 5가지 등급으로 구분된다고 한다.<sup>108)</sup>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는 일상생활의 소비에만 신경을 쓰고 문화적 취향에까지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고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심리적 욕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높아진다. 이때 사람들은 상품의 물질적 가치와 가격의 높낮이에 더는 관심을 두지 않고 상품의 문화적 가치를 찾게되며, 정치나 종교나 문화 활동과 같이 자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아는 지식도 많고, 취미생활도 많아지는 것이 욕구가 충족된 다음 단계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의 문화적인 존재는 차의 실용적 기능에 심리적 기능을 더해 사람들의 심미적 요구를 만족시키거나, 또는 소비자의 신분과 지위를 더욱 두드러지게 함으로써 차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

셋째, 차의 경제적 정보를 확산하는 기능이다.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을 연결하는 문화와 경제가 서로 융합되면서 사람들은 차 문화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두게 되는데, 차 문화 축제와 차 박람회 등이 바로 차의 경제적 정보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106) 黃曉琴, 〈茶文化的興盛及其對社會生活的影響〉, 저장대학 석사학위논문, 2003. 17쪽.

107) <https://www.puer.cn/news/106077/>(중국보이차 사이트)

108) 서울교육방송, 《매슬로 5단계 욕구 이론과 4가지 인간 유형》, 미디어북, 2017. 17쪽.

## 제 2 절 차 문화의 경제적 영향

### 1. 차 산업의 발전

차 문화의 흥성과 발전은 사람들에게 차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할 뿐만 아니라 차를 즐겨 마시는 습관이 멋지고 건강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시켰다. 항저우는 차 문화가 잘 형성된 도시로서 1982년 ‘차 문화를 고양하고 차 산업을 발전시킨다(弘揚茶文化)’는 취지로 ‘다인의 집(茶人之家)’을 세운 데 이어, 1990년 첫 ‘국제 차 문화 축제(國際茶文化節)’를 개최하고, 룡징차 생산지에 중국 유일의 차 전문 박물관을 세웠다. 중국 시장을 강타한 외래 음료에 맞서 항저우는 차 문화를 알리는 장소로 자리 잡았다. 10여 년 동안 항저우에서는 차와 건강, 문화 세미나, 시후(西湖) 투다회, 시후 국제다회, 항저우 국제 다문화제, 시후 엑스포 차 박람회 등 다양한 차 문화를 알리는 행사가 열려 차 문화를 알리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전문성이 높은 시후 차 박람회에 도 수많은 차 애호가들이 참여하여 각종 명차를 즐기며 차에 대한 지식을 키웠다. 이를테면, 중국 차 박물관(中國茶葉博物館)은 일찍이 1986년 항저우에 세워졌는데, 1991년에는 쌍평관(雙峰館)이, 2015년에는 룡징관(龍井館)이 대외적으로 개방되었다. 현재 항저우의 차 박물관은 시민들이 차 문화를 이해하고 차 지식을 풍부하게 하는 교육의 장으로 이용되며 차 문화 유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 문화의 유행과 확산은 차 산업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서 찻집 경제의 회복과 차 소비량의 상승, 차 문화 관광 발전, 차 산업 컨벤션 경제의 활성화, 차 음료 산업의 급속한 성장, 차 의약 보건업의 발전 등 다양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었다.

#### 1.1 명차 산업의 발전

이른바 명차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차 종류와는 크게 구별된다. 찻잎의 주요 특징은 우수한 생태환경 아래에서 좋은 차나무 품종을 이용하여 특수한

제다공법으로 만든 제품으로, 특정된 차 따는 기준과 공예 기술이 깃들여 있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독특한 색깔과 향과 맛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명차에는 감상적 가치와 품평 가치가 있어 문화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각 지역에서 명차를 혁신적으로 제작하거나 복원한다는 기사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각종 명차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예컨대, 시후룽징(西湖龍井), 둥팅삐뤄춘(洞庭碧螺春), 신양마오젠(信陽毛尖), 쿤산인전(君山銀針) 등과 같이 양질의 생산지에서 생산되는 차, 꾸주쓰순(顧諸紫筍), 징산차(徑山茶), 후이밍차(惠明茶)와 같이 고대의 명성을 되찾고자 하는 차, 그리고 첸다오위예(千島玉叶), 린하이판하오(臨海蟠毫), 우즈셴하오(午子仙毫) 등과 같은 혁신적으로 새롭게 탄생한 차 등이 있다.

중국의 유명한 차 생산지는 주로 저장, 후난, 쓰촨, 안후이 등 지역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저장성은 차를 생산하는 지역이 많아, 명차 산업의 활성화 역시 이 지역 차 생산발전의 한 특징으로 나타난다. 그 외, 명차 생산액도 전체 차 산업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저장성 명차 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차 농가에 높은 경제적 수입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차의 생산과 판매를 모두 왕성하게 하여, 일부 주요 생산지의 차 전문시장과 산지 교역 시장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명차 가공 기계와 차 포장업 등 관련 학과의 발전을 이끌었으며, 기타 우량 품종, 시설, 냉장 보존 기술이 보급되고 응용되어 관련 경제의 발전을 이끌었다.<sup>109)</sup>

## 1.2 찻집의 회복과 차 소비량의 상승

찻집은 당대에 최초의 형식을 갖춘 후로 송대에 이르러 큰 발전을 가져왔고 청대에 전국 각지로 퍼졌다. 이로부터 찻집은 사람들의 여가를 즐기기에 좋은 장소로 자리 잡혔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찻집은 쇠락했고, 특히 문화대혁명 기간 찻집과 음다 활동은 봉건주의 사상을 띤 것으로 인식되면서 찻집은 중국에서 자취를 감췄다. 다행히 1978년 이후로 찻집이 복귀되고 현재 차 문화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전국 각지에 많은 찻집이 생겨났다. 차 업

109) 黃曉琴, 앞의 논문, 39쪽.



체들은 주로 남방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는데 각 성에 등장한 차 업체 수를 조사한 결과를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sup>110)</sup>

성	업체 수	성	업체 수	성	업체 수	성	업체 수
福建	753	廣東	552	浙江	184	海南	7
云南	221	河南	118	河北	41	江蘇	83
湖北	86	吉林	12	甘肅	7	湖南	60
陝西	60	貴州	52	青海	1	安徽	193
山西	11	四川	90	山東	130	遼寧	13
黑龍江	7	內蒙古	3	广西	63	西藏	2
宁夏	6	新疆	5	北京	57	上海	53
天津	13	重慶	16	香港	1	台湾	9
江西	82						

**<표 3> 중국 각 성 차집 통계표(2022년 2월)**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은 푸젠성, 광둥성, 윈난성, 저장성, 안후이성, 산둥성, 쓰촨성, 장쑤성 등에서 활발하게 차 사업과 문화가 행해지고 있다. 현재, 중국의 차집은 다루, 다정, 다장, 다방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어질 수량으로 보아 세계에서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변화한 거리는 물론 맑고 그윽한 공원, 호텔이나 백화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아예 전문 차집 거리도 등장하고 있다. 이미 지어진 차집들은 보통 수백 수천 제곱미터에 달할 정도로 길게 즐비해 있다. 남쪽 지역이든 북쪽 지역이든 할 것 없이 차집은 모두 도시의 새로운 산업이 되었다. 베이징에서는 라오서(老舍) 차집이 가장 먼저 개설되었고 그 뒤를 이어 다양한 차집들이 잇따라 생겼다. 현재 명성이 자자한 우푸(五福) 다예관은 이미 15개 정도의 가맹점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상하이에는 차 생산지는 아니지만 차 문화 행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오히려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991년 상하이의 첫 다예관인 송위안(宋園) 다예관을 시작으로 후신텩차집(湖心亭茶樓), 왕이지(王怡記) 차집이 잇달아 개설되었다. 1994년부터 매년 열리는 상하이 국제 차 문화 축제는 각종 마스크를

110) 이 통계는 2022년 2월까지 中國茶葉網 caayee.com에 등록된 성, 직할시별 차 업체 수 현황이다.

통해 전파됨으로써 상하이 사람들에게 차 문화는 일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 2. 차 문화 관광

차 문화의 인기와 함께 관광농업이 성장하면서 차 생산 지역에서는 차 문화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현지의 차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현지 특색을 발굴하여 그 특유의 풍격으로 각지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현재 차 문화 관광 발전의 유형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테면, 광둥잉더(廣東英德)의 ‘차취원(茶趣園)’과 ‘차 세계(茶世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생태 관광 다원, 상하이 자베이 차 문화 공원, 쿤밍 엑스포 그리고 항저우의 룡정산원(龍井山園)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차 문화공원, 타이완성의 룡터우(龍頭)레저 농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관광 레저 차 농장, 푸젠의 바민다향풍경투어(八閩茶鄉風情旅游)를 모방한 다향풍경투어(茶鄉風情游) 행사 등이다.

차 문화 관광은 우선, 차 산업의 생산을 바탕으로 차 산업의 생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어 지속적인 차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사람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여가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는 관광 경영에 중점을 두어 효과적인 차 산업 자원 개발을 중시하고, 관광산업의 발전에 따라 차 산업 관광자원의 개발과 혁신을 요구한다. 그다음으로, 효율적이고 위험도가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차 문화 관광을 개발하면 차 산업과 여행 산업 등이 동시에 발달하는 두 가지의 종합적인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지역 간에 상생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제한을 없앤다면, 다양한 개발이 가능할 것이고, 또한 광범한 관광자원을 쉽게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차 문화의 주요 기지인 푸젠성에서는 “차 문화로 관광을 이끌고, 관광으로 차 산업 발전을 돕자”라는 주제가 현지 관계부처의 공통된 의견으로 나타났다. 푸젠의 안시현(安溪縣)은 전국 최초로 차 산업과 차 문화 관광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차 문화 관광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한 지역으로, ‘안시 차 문화 체험’은 현재 차 문화 관광의 황금 코스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안시현은 독

자적인 자원적 장점을 살려 기존 차 문화 관광지를 신설했다. 이를테면, ‘중국의 다도(茶都)’인 안시 전국 차 도매시장, 다원, 차 박물관, 차 공원, 시핑(西坪)의 테관인(鐵觀音) 발원지 탐사 등이다. 주로 차 산지 관광, 생태 탐방, 레저 바캉스, 명승고적 찾기 등 차 문화에 특화된 네 가지 코스를 선보였다. 차 문화 관광 노선 개척으로 경제를 크게 발전시킨 안시현은 가난한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푸젠성의 “경제 발전 10대 지역” 중의 하나가 되었다.

현재 중국의 차 문화 관광의 발전은 매우 활발하다. 후난구장차(湖南古丈茶) 회사만 보더라도 후난에서 가장 큰 다원인 우링차(武陵茶)원에 300만 위안 이상 투자하여 연구와 관광을 통합하고 차 산업 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항저우에서도 2002년에 조성한 특색 있는 상업 거리 중 하나로 메이자우(梅家塢) 차 문화 관광거리가 룡징원차(龍井園茶), 위차수(御茶樹) 열여덟그루, 룡징산원(龍井山園), 수광루(曙光路) 찻집 거리와 함께 특색 있고 규모가 큰 ‘차 문화 관광권’을 형성하고 있다. 충칭용촨시(重慶永川市)는 또 자체 자원의 장점을 살려 차 산업과 관광업을 결합해 2만 무에 달하는 차 농장을 차 문화 관광 거점으로 개발하고 2003년에는 국제 차 문화 관광 축제를 열어 차 문화 관광의 인지도를 높이기도 했다. 윈난성 관계 부서는 쓰마오시(思茅市)를 ‘중국 차의 도시(茶城)’로 발전시켜 차 산업과 차 문화 육성을 위주로 운영하였다. 그러면서 점차 차 문화와 관광 발전에 중점을 두고 화려한 차 문화 관광도시로 만들었다.

### 3. 의약 보건과 컨벤션 산업

컨벤션 경제는 전시를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다양한 형태의 전시회, 박람회 등 대회를 개최하여 상품을 전시하고 정보를 전달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차 수요를 자극하여, 직간접적으로 운송업, 통신업, 관광업, 광고업, 컨설팅업, 외식업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효과를 보인다. 상품 전시, 거래, 경제 기술 제휴 등 전시경제의 기능은 물론 정보 자원, 투자, 용자, 비즈니스 서비스 등의 부대 기능을 갖추고 있다. 컨벤션 산업은 경제 사회적 효과와 생명력, 넓은 발

전 전망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로부터도 유망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차 생산과 판매의 주요 성, 시, 자치구는 모두 차 축제와 차 박람회를 빈번히 개최하고 있다. 전시회에는 주로 차 생산업체, 차 포장업체, 차 가공업체, 다기 생산업체, 차 음료 생산업체, 차 식품 생산업체, 차 기계 생산업체, 차 테크니컬 연구업체, 비 차류 식물 음료 생산업체, 기타 관련 제품 생산업체 등이 참가한다. 차 축제, 차 박람회는 일반적으로 전시, 회의, 행사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를 살펴보면, 상하이 국제 차 문화제, 허난신양(河南信陽) 차 축제, 장쑤리양(江蘇漂陽) 차 축제, 후베이잉산(湖北英山) 차 축제, 항저우 중국 국제 차 박람회, 지난(齊南) 차 박람회, 광저우(廣州) 차 박람회, 중국 국제 차 박람회 등이다. 차 산업 전시회는 많은 경제 효과가 따르며, 차 산업 경제발전의 새로운 포인트가 되고 있어 차 산업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운반체가 되었다.

상인들의 투자사업으로는 차밭 재배 개발, 차 심층 가공 및 복합 이용, 차 시장 조성, 차밭 관광 및 차 문화 관광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큰 규모의 투자는 일본 상인과 홍콩 상인이 합작해 3억6000만 위안을 투자한 샤먼(廈門) 차 산업이다. 타이완의 텐인(天引) 그룹도 푸젠샤푸텐푸(福建霞浦天福) 관광 다원에 8,270만 위안을 투자했고, 지난에서 열린 제2회 차 박람회에서 2억 5천만 위안의 거래가 이루어졌다.<sup>111)</sup>

다음으로, 차 산업 전시회는 끊임없이 상류, 물류, 인과, 자금 흐름, 정보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연결고리 기능을 한다. 따라서 교통·숙박·음식점·쇼핑·관광·광고·장식 등 다른 산업의 소비도 촉진한다. 1992년 이래 허난성 신양은 매년 차 축제를 개최하여 차를 매개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축제를 펼친다. 이러한 차 축제와 전시회는 대외 무역이나 차 판매 이어져 높은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거두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10회의 차 축제 기간의 상품 무역 거래액은 누적 63억 위안에 달하며, 경제 기술 합작 프로젝트 456개, 하드웨어 건설 프로젝트 288개, 신양 전략 발전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잇따라 생산 및 건설되어 신양 경제발전엔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장쑤성 리양 차 축제 역

111) 濟南舉行第二屆國際茶博會, 《茶叶信息》, 2002. 6.

시, 1991년 이래 총 8회의 차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했다.<sup>112)</sup>

### 3.1 차 음료 산업의 빠른 성장

차 음료는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종류가 다양하다. 현재 약 40여 종 이상으로 집계되며, 주로 차 음료형에 속하는 우롱차 수, 홍차 수, 녹차 수, 화차 수와 다맛류에 속하는 레몬차 수, 밀크티 그리고 한방 및 식물성 원료를 첨가하여 가공한 음료인 사이다류, 건강류 차 음료로 분류된다. 현재, 와하하(娃哈哈), 젠리바오(健力宝), 자뒤바오(加多宝) 등 브랜드가 뛰어들어 이미 차 음료 생산에 투자한 업체들은 모두 큰 이익을 거두고 있다.<sup>113)</sup> 차 음료는 이미 음료 시장에서 매우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자리하고 있다.

### 3.2 티 폴리페놀을 주체로 하는 차 의약 보건업의 대두

건강에 대한 홍보와 연구가 진행되면서 차는 인체에 유익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 차의 성분 가운데 특히 티 폴리페놀은 항암, 노화 방지, 인체의 프리라디칼 제거, 혈당 저감 등 일련의 중요한 약리용으로 의약, 식품, 화학공업 등의 업종에 응용되고 있다. 중국은 80년대 중반 차에서 티 폴리페놀을 주체로 한 천연 항산화제를 가장 먼저 추출하여 성공적으로 월병(月餅), 햄 등의 식품에 적용함으로써 식품의 유통기한을 효과적으로 연장하였다. 티 폴리페놀은 식품 천연 항산화제로서 국가표준 건강식품 성분표 GB2760-86에 등록되었다. 또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로 티 폴리페놀을 원료로 하는 심뇌건 캡슐 원료도 저장성 지방약전(地方藥典) QIWS639-84호에 등록하였으며 저장성, 상하이 등 많은 제약회사에서 캡슐이나 알약으로 생산하고 있다.

90년대에는 티 폴리페놀의 추출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향상됨에 따라 산업화되기 시작하여 많은 기업이 생산에 나섰다. 저장, 장쑤, 안후이, 후베이, 장

112) 黃曉琴, 위 논문, 43쪽.

113) 와하하(娃哈哈), 젠리바오(健力宝), 자뒤바오(加多宝)는 중국을 대표하는 3대 식품 브랜드 업체이다. 이들은 주로 음료 위주로 생산하고 있다.

시, 푸젠, 쓰촨, 후난, 텐진 등 지역에서 티 폴리페놀 생산 라인을 구축하였다. 당시 장쑤 리양(溧陽)시의 티 폴리페놀 생산기지에서는 연간 400톤의 찻잎을 소비하고, 30톤가량 가공물을 생산했다. 현재 티 폴리페놀과 같은 천연 항산화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응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국내외 시장에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그 외에도 찻잎에는 카페인 알칼리, 색소, 다당류, 티슈프과 같은 유효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유망한 제품이다. 이를테면, 차 색소 이용은 이미 장시성으로부터 생산 허가증을 획득하였다. 차 카페인은 식품 첨가제 사용 범위에 포함되었고, 차 다당은 인체 면역 기능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의학계에서 중요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 문화의 융성은 차 산업 경제를 크게 촉진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제 3 절 차 문화의 사회적 영향

#### 1. 전통문화와 인문학적 소양

차 문화에는 중국의 전통사상인 유·불·도가 깊이 자리하고 있다. 역대 유가들은 차로써 검소함(廉)을 길렀는데 이는 삶의 철학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불교는 차의 고적을 맞보며 차로써 선(禪)을 돕고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도교 역시 차로써 공령자연(空靈自然)의 관점을 제시했다. 본 절에서는 중국 전통사상이 차 문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유가 사상의 핵심은 중용의 조화를 중시하고 추종하여, 인격의 완성을 추구하고 도덕적 교화와 인격의 이상적 건설을 중시하였다. 역대 유가들은 수신으로 집안과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으며, 생활 속에서 자신을 엄격히 절제하였다. 이들은 먼저 자신이 도덕을 수립한 후 다른 사람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차는 문인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물질로 등장했는데, 이는 찻잎이 고결하고 담담하며 고상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유가 사상의 하나의 이상적인 존재가 되었다. 유교 다인들은 차를 마시는 과정을 도덕적 수양과 연결시켰다.

차를 마시는 과정을 통해 인격 수양의 완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여겼는데, 그 과정 전체가 바로 자기반성, 마음의 도야, 성품 수련, 인격을 완성하는 과정이었다. 위진시대 문인들은 청담(淸談)을 나눌 때 차를 마시며 흥을 돋우고 제세광국(濟世匡國)의 이상을 표현하였다. 당송 때 문인 사대부들도 차에 대한 시를 짓고, 가사를 쓰고, 그림을 그리면서 서정을 술회하면서 자신의 도덕적 이상과 인격적 추구를 표현하였다.

도가사상은 노장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철학사상으로 인간의 현실적 타락과 무지의 근거를 찾아 그것을 척결해 내고, 자연의 실상을 깨달은 참 지혜를 통하여 무위(無爲)의 삶을 추구하는 사상이다. 노자는 ‘도는 크고, 하늘도 크고, 땅도 크고, 왕 또한 크다. 이 세상에 네 가지 큰 것이 있는데, 왕이 그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한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sup>114)</sup>라고 했다. 그 의미는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이므로 반드시 자연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자연에서 ‘장생구시’ 하려면 반드시 도를 닦아야 하며, 도를 닦는 길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과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다. 이때 차는 바로 천지의 정기를 받아들인 존재였다. 정기의 자연 지물은 도가의 ‘천도자연’, ‘천인합일’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 차가 도가(道家)에 받아들여진 것은 ‘몸을 가볍게 하고 뼈를 갈아 우화(羽化)시켜 선(仙)이 되기 때문’이라고 여긴 까닭이다. 도가는 수양의 도를 매우 중요시하였는데, 이를테면 ‘기운을 기른다’, ‘신기를 기른다’, ‘형태를 기른다’에서 ‘허정무욕(虛靜無欲)’, ‘전기지유(專氣至柔)’의 상태에 도달함이다. 만약 사람들이 허정공령의 마음으로 천지 만물과 소통할 수 있다면, 물체와 나 자신은 모두 망각하고 천인이 합일하는 경지, 즉 ‘천락’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차의 자연적 본성에는 고요함(靜), 비워둠(虛), 깨끗함(淸), 깊음(潭)의 뜻이 담겨 있어 도가가 주장하는 ‘몸과 마음을 닦는’ 물체가 되고 또 도가의 정신과도 융합된다.

불가는 ‘조용히 생각함(靜慮)’을 제창하고, 이로써 ‘깨달음(頓悟)’에 이르게 하는 사상이다. 불가의 정좌를 통해 참선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정좌할 때 자아의 본심, 본성 파악의 기초 위에서 주체와 객체, 유한과 무한, 일시와 영원

114) 道大、天大、地大、人亦大。域中有四大，而人居其一焉。人法地，地法天，天法道，道法自然。

의 관계를 극복함으로써 번뇌, 고통, 생사를 초월하여 정신의 터전을 만든다. ‘조용함(靜)’은 불교에서 참선하여 도를 깨달을 때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심경인데, 차를 마신 후 사람의 번뇌와 초조함을 없애 마음이 평온한 경지에 이른다고 여겼다. 따라서 다사(茶事)는 불가의 중요한 행사 중 하나가 되었고, 또 불교의 청규(淸規)에 등재되어 장엄한 다례 의식을 이루게 되었으며, 선사(禪事) 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차와 선은 한 가지 맛’이라는 ‘다선일미(茶禪一味)’는 차와 불교의 관계를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해준다.

현대사회는 각종 문화가 서로 충돌하고 융화하는 시기로, 서양 문화는 우리 사회 민중의 사상과 신념에 상당한 갈등을 조성하였다.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면서 개인의 이익과 사회 집단 이익의 조화를 무시한 채 자유주의의 범람을 가져왔고, 물질적 향유를 지나치게 강조해 배금주의와 병적인 소비주의를 가져와 사회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에 반해 차 문화에는 헌신, 인내성, 겸손, 예의, 근검절약,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는 등의 전통적 미덕이 담겨 있어 현대의 정신문명 건설에 도움이 된다. 이에 중국 각 지역은 정신문명을 건설하고 전통문화를 선양하기 위해 차 문화를 지역사회에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전통 문화를 받아들여 정신과 문화생활을 풍부하게 하였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다예를 보급함으로써 차 문화 지식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애국주의와 전통 문화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2. 차 문화와 교제 활동

당대 유전량(劉貞亮)은 ‘음다십덕(飲茶十德)’에서 ‘차로 경의를 표해야 한다(以茶表敬意)’고 주장했다. 또 송대의 시인 두퇴(杜耒)는 <한야(寒夜)>라는 시에서 ‘추운 밤에 차로 술을 대신하니 죽로탕(竹爐湯)이 끓어올라 금방 붉어지네. 평소에 보던 창밖의 달이건만 오늘따라 매화꽃이 달라 보이네.’<sup>115)</sup>라 했다. 이처럼 ‘손님이 오시면 차를 드리는 것’은 중국 사회의 일반적인 풍조가 되었고, ‘손님이 오시면 차를 장만하고, 국을 차리는 것’은 일반적인 접대 의례가 되었으니, 손님들에게 차를 권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 사람들

115) 莫礪鋒.〈寂寥長夜中的活潑詩情—讀杜耒《寒夜》·趙師秀《約客》〉, 《文史知識》, 2020. 33쪽. “寒夜客來茶當酒, 竹爐湯沸火初紅。尋常一樣窗前月, 才有梅花便不同。”



의 전통 예절이었다.

중국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예의범절을 중시하는 나라였다. 속담에 ‘천 리에서 거위털을 전하는 것은 가벼우나 그 감정은 매우 깊다(千里送鵝毛, 禮輕情意重)’는 말이 있듯이 선물은 가볍지만, 정은 매우 깊음을 뜻한다. 옛날 문인들은 차를 즐겨 마시면서도 스스로는 차를 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새 차가 나올 때마다 문인과 친분이 있는 차 농가들은 새 차를 보내주었고, 문인들은 새 차를 선물 받으며 친목을 다졌다.

당대의 시인 백거이가 촉중(蜀中)의 소원(蕭員)이 보낸 신차를 맛보고 붓을 들어 ‘촉산 차를 받았을 때는 신선함에 놀랐을 뿐인데, 위하수로 차를 우려내니 소중한 걸 알겠노라. 잔에 가득 담긴 젓빛 차 거품은 원래 즐길 만한 것인데, 하물며 늦봄에 술에 취해 목마른 나는 어떠할까?’<sup>116)</sup>라는 시를 지어 새 차를 받고 난 후의 흥분과 소중함을 표현한 적이 있다. 이처럼 차를 보내는 풍습은 일종의 친목 활동으로 대물림되고 있으며, 중국의 차 생산지에서는 매년 새 차가 출시될 때 멀리 있는 친지들에게 새 차 한 봉지를 보내는 것을 잊지 않는다.

그뿐이 아니다. 옛날에는 여성들이 혼인을 할 때 혼수로 삼았기 때문에 차는 전통혼례와도 관계가 깊다. 641년 문성 공주는 토번(吐蕃)으로 시집가면서 차를 가져갔는데 그때부터 한족의 차 마시는 습관이 변방 지역으로 옮겨졌다. 옛날 저장 일대의 여자들이 시집갈 때 친정집에서 짠 차를 장만해 남자 쪽 친지, 이웃에게 나눠주는 풍습이 있었는데 ‘대접가차(大接家茶)’라고 했다. 이후 다례는 결혼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고, 고대 강남 한족 지역에서는 아예 약혼에서 혼인에 이르는 예절을 삼다례(三茶禮), 즉 약혼의 하차(下茶), 결혼의 정차(定茶), 동방의 합차(合茶)라고 불렀다.

사람들의 상호 교류에는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중 차와 술은 사뭇 다른 특성을 보인다. 차는 담백하고 부드러우며, 술은 뜨겁고 강하고 독하다. 맑은 차 한 잔을 마시면 기분이 상쾌하고 머리가 맑아지지만, 술은 많이 마시면 생각이 흐트러져 말이 도(道)를 잃게 된다. 따라서 교제할 때, 차로 술을 대체하면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도를 넘지 않고 상대방을 대하기 때문에 남

116) <https://baike.baidu.com/item> “蜀茶寄到國涼新，渭水煎來始覺珍。滿甌似乳堪持玩，況是春深酒渴人。”

을 우애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좋은 분위기에서 교체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찻집의 고아하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우의와 정감을 증진하고, 정보를 교류하거나 비즈니스를 성사시키기 때문에 사회화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라오서 선생은 ‘찻집은 삼교구류가 만나는 곳으로 다양한 인물을 수용할 수 있고, 큰 찻집은 바로 작은 사회’<sup>117)</sup>라고 했다.

근대에 들어 찻집은 더욱 시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공공장소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보통 찻집 모임을 통해 대화를 나누거나, 레저를 즐기거나, 정보를 알아내거나, 분쟁을 조정하거나, 상업 활동을 한다. 예를 들면, 근대 강남 지역의 시골 찻집은 상업 거래처 역할을 담당했고, 이곳에서 사람들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당시 농업·잠업·실크업의 주요 경제정보를 찻집에서 얻을 수 있었다.<sup>118)</sup> 당시 찻집에서는 직접적인 무역 상담이나 현장 거래도 가능하였다.

1980년대 중국 각지에 다시 찻집들이 들어서고, 심지어 외국에서 온 귀빈을 접대하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 특히 광저우의 찻집이 유명한데, 상업 도시로 유명한 광저우 상인들은 찻집에서 친구를 만나 정을 나누었다. 예컨대 장쩌민주석이 상하이 후신탕(湖心亭) 다루에서 영국 여왕에게 차를 대접하는 국제 교류의 무대가 되기도 했고, 1998년 클린턴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광시 구이린(桂林)의 한 찻집에서 부인과 딸을 위해 중국 다도를 관람하는 등 국제 교류 장소가 되기도 했다.

### 3. 차 문화와 인생의 시화(詩化)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생활 리듬이 점점 빨라지면서 그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 사람들은 우아하고 감상적인 정취를 향유하려 한다. 이때 한적하고 평온한 찻집에서 마시는 차 한잔, 그리고 감동적인 다예 공연은 사람들의 번뇌를 녹여주고 시적인 정취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한다.

고상한 차 문화는 거문고(琴), 기(棋), 서(書), 화(畵), 시(詩), 술(酒)과 함께

117) 老舍, 〈答復有關〈茶館〉的幾個問題〉, 《文藝研究》, 1958, 34쪽. “茶館里三教九流會面之處, 可以容納各色人物. 一個大茶館就是一個小社會.”

118) [日] 鈴木智夫, 〈清末江浙地區的茶館〉, 《江海學刊》, 2002.1. 143쪽.

어우러질 수 있는 중국의 전통문화이다. 차 문화 발전과정에서 보이는 두드러진 특징은 다른 예술과 결합하는 계기를 만들어 문인들의 고상한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일찍이 육우가 차를 마시면서 주장하였던 것과 같이, 문인들은 음다에 대해 시종 높은 경지를 추구하였다. 문인과 차는 상대방의 고상함을 서로 돋보이게 하므로 차를 즐겨 마시고 음미하며 시와 더불어 교류하였다.

#### 4. 차와 대외 교류

차 문화는 민족적 정체성과 더불어 국제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일본에서는 경사가 있거나 손님과 주인 간의 교류가 있을 때 다도 의식을 거행한다. 한국에도 단아한 다례가 있고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유교문화권 국가 모두 차 문화가 존재한다. 차 문화는 비단 아시아에서만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의 다른 대륙에도 널리 알려졌으며, 현지의 생활양식, 풍토와 결합하여 각각 특색 있는 차 문화를 형성하였다.

차의 경제적 가치는 중국의 대외 경제 문화 교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차는 일찍이 중국 대외 무역의 중요한 상품으로서 각국의 경제 무역을 연결하는 작용을 하고 있었다. 중국인들이 차를 마시는 습관은 일찍부터 세계 각국으로 퍼져 나갔으며, 비단이나 도자기와 같이 주요 수출상품의 하나가 되었다.

17세기 중국의 차 무역은 이미 아시아 지역을 넘어 서방 국가에 선을 보여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러시아 등이 모두 중국에서 직간접적으로 차를 수입하였다. 중국은 18세기 세계 차 수출 무역에서 점차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19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세계 차 소비량의 96%를 차지할 정도로 국제시장에서 절대적인 지배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당시 중국 무역의 핵심 상품이 되었다.

차는 고대 일본과의 문화교류에서 중요한 매개체였다. 중·일 양국은 서기 607년부터 국교를 수립했고, 그 후 정치, 문화, 경제적 교류가 빈번해졌다. 일본에서는 많은 승려를 중국에 파견하여 공부하게 하였는데, 이때 중국 황제

는 다의식을 거행하여 승려에게 차 가루를 하사했고, 귀국할 때는 차잎을 선물해 본국으로 가져가기도 하였다. 따라서 차는 양국의 우호 관계를 상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셈이다.

현대의 차 문화는 이미 국경, 종족을 넘어 세계 평화를 촉진하는 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 그 하나는 국제 차 문화 교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각국의 다인들이 모여 차 문화의 역사와 현황을 함께 탐구하고, 차 문화의 미래를 전망하며, 교류 속에서 서로 배우고 이해하며 친목을 다진다는 점이다.

1998년 9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21세기 중국 차 문화로 가는 국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각국 차 전문가와 애호가들이 참석하였다. 중국 차 문화를 전문적으로 탐구하고 연구하는 포럼은 미국인들에게도 중국 차 문화를 이해할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양국 국민이 서로 이해할 기회를 제공했다. 그리고 ‘국제 차 문화 축제’를 개최할 때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 많은 다인들이 참가하였다.

다음, 2002년 축구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는 공연에서 난창(南昌) 여자직업학교의 다예 공연팀이 국제 교류 무대에 올라 차 문화를 선보였다. 또 항저우 차 박물관에는 각국 국민들이 방문하였으며, 상하이 ‘후신탕 다루(湖心亭茶樓)’도 중요한 외교 활동 거점이 됐다. 일본 다도 천가청년 대표단은 2001년 6월 28일 제100회 방문 때 장쩌민주석을 만나 ‘세계 각국의 문화는 서로 교류하고 있다’며 ‘다도는 중국에서 유래했지만, 일본에서 크게 발전해 두 나라 국민 간의 유대가 됐다’<sup>119)</sup>고 말했다. 2001년 상하이에서 열린 APEC 연회에도 차 문화 축제가 있었다. 송년회를 마치고 각 멤버 지도자들에게 주는 선물은 전통 공예와 서양 무늬가 깃들어 있는 찻주전자였다.

2003년 보아오(博鰲) 포럼은 항저우 시청과 함께 5월 21~22일 보아오 국제 차 문화제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보아오 포럼 심포지엄 중 하나인 보아오시후(博鰲西湖) 차 문화제는 차를 주제로 아시아 각국 공통된 수용체를 통해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차로 친구를 여기고, 차로 친구를 만나 아시아 각국의 경제협력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119) 日本茶道里千家青年代表團2001年6月28日第一百次訪華，江澤民主席會見時說，世界各國的文化是相互交流的，茶道雖源于中國，但在日本也得到了很大發展，并成爲兩國人民之間的友好紐帶。

## 제 5 장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차 문화의 발전 단계와 그 기능을 고찰함으로써 오늘날 차 문화의 경제·사회적 역할과 그 임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논술하고, 다원화된 문화 속에서 중국 차 문화의 발전을 전망하고자 하는 데 있다.

본고는 총 네 개 부분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였는데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은 관련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2장은 논의 전개를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차와 차 문화의 정의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차 문화의 기원을 살펴보고 연구 수행을 위해, 기존 연구의 시대적 분류를 바탕으로 차 문화의 기원과 시기를 새롭게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차는 등장 초기부터 차 문화와 사상, 종교, 학문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장에서는 차 문화의 변천 과정을 태동기, 형성 및 발전기, 번영기, 변화기, 차 산업 부흥기 등 다섯 발전단계로 구분하여 차 문화 발전의 단계별 발전 배경 및 음다 풍습과 명차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태동기는 선진시기부터 한 왕조까지로, 삼황오제 때 중국에서 가장 먼저 차 나무를 발견하고 재배한 것으로부터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 문화적, 사회적 기능을 하게 된 시대는 한대였다. 차는 처음 인간에게 약용으로 쓰였으나 그 이후에 보건 음료, 정신적 음료의 역할을 했다.

형성 및 발전기는 위진남북조시기부터 당대까지인데, 당대의 육우가 저술한 《다경》에서 이 시기 차 문화의 형성을 잘 보여준다. 위진남북조시대에 차 문화가 점차적으로 형성되다가 차 문화의 발전기로 볼 수 있는 당대에 와서는 운하를 통한 활발한 남북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차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중국 차 문화는 송대로 접어들면서 그야말로 절정을 누리게 된다. 송대부터 각종 산업, 종교, 과학 기술, 문학, 문화 활동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이민족 시대인 요·금과 함께 차 문화 번영기를 형성하였다. 그다음으로 차 문화는 원대부터 해방 후 문화대혁명에 이르기까지 변화된 발전양상을 보인다.

원대의 차는 단차에서 산차로 전환되었고 명대에 유행되었으며, 청대 중엽까지 홍차, 녹차, 우롱차를 가공하여 음용하였다. 청대 말기에 들어 차 문화가 침체기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인도가 차의 최대수출국이 되었다. 중국이 해방된 후,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 차 생산이 퇴조하다가 1966년부터 10년동안 문화대혁명기를 거치면서 차 문화는 단절되었고, 1978년에 이르러 차 산업이 다시 회복되어 현재까지 부흥기를 이루고 있다.

4장에서는 차 문화의 기능과 차 문화가 현대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우선, 차 문화의 기능을 문화적 기능, 교육적 기능, 심미적 기능 그리고 실용적 기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차 문화의 발전은 명차 산업, 차 문화 관광, 차 산업의 컨벤션 경제, 차 음료 산업, 차 의약 보건업의 발전으로 이어지면서 차집과 차 소비량도 급격히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차 문화를 통해 예의를 갖추거나, 스스로의 행동을 중시하고 청렴하고 검소한 사람을 숭상하는 등 인문학적 소양을 갖게 되었으며,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하고 향수는 사회의 경제 발전, 삶의 질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전통문화의 현대적 가치에 대해, 첫째, 서양의 ‘문화적 침입’에 맞서 문화적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 둘째, 민족문화 현대화의 출발점이다. 셋째, 현대사회의 정신문명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중국의 차 문화는 좋은 품질의 차 생산 기술, 문화적 확산, 학문적 연구,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 등을 통해서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이러한 폭넓고 깊이 있는 문화적 발전은 최근의 한류와 비교해 볼 때 많은 것을 시사한다.

국내에도 많은 다인들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차 산업 또한 상당한 규모에 달하고 있다. 중국 못지않게 전통으로 뿌리가 깊게 자리한 우리의 차 문화도 최근의 한류와 더불어 한국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金明培, 《中國의 茶道(역저)》, 明文堂, 1985.  
 \_\_\_\_\_ 《日本の 茶道》, 도서출판 보림사, 1987.  
 \_\_\_\_\_ 《茶道學》, 학문사, 1987.  
 \_\_\_\_\_ 《茶道學 論放》, 대광문화사, 2001.  
 金明培 역저, 《중국의 다도》, 문명당, 서울, 2001.  
 郭孟良, 《中國茶史》, 山西古籍出版社, 200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www.korean.go.kr/front/main.do>.  
 常璩 著, 《華陽國志》, 齊魯出版社, 2010.  
 舒玉傑 編著, 《中國茶文化今古大觀》, 北京出版社, 1996.  
 서울교육방송, 《매슬로 5단계 욕구 이론과 4가지 인간 유형》, 미디어북, 2017.  
 徐銀美, 《北宋茶專賣研究》, 國學資料院, 1999.  
 손민영, 《禮茶論》, 보림사, 1991.  
 梁子, 《中國唐宋茶道》, 陝西人民出版社, 1997.  
 염숙·염영옥, 《중국 역사 속에 꽃피운 차 문화》, 2009년 9월, 전남대학교 출판부.  
 王從仁, 《中國茶文化》, 上海古籍出版社, 2001.  
 王俊暉, 論中國茶文化研究的跨學科趨勢, 農業考古. 2012.  
 龍麟, 《清代普洱方志考述》, 上海地方志, 2017.  
 陸羽著, 藍彬主編, 《陸羽茶經誦讀》, 中國輕工業出版社, 2017.  
 李治·薛濤·魚玄機, 《李治薛濤魚集》, 中國書店出版社, 2017.  
 李震 編著, 《茶之道》, 中國商業出版社, 2004.  
 周紅傑, 朴鎔模 옮김, 《운남보이차》, 한숨미디어, 2005.  
 張意恂 著, 金斗萬 譯, 《東茶頌, 茶神傳》, 太平洋博物館, 1982.  
 정동호·윤백현·이영희, 《차생활문화대전》, 출판:홍익재, 2012.  
 濟南舉行第二屆國際茶博會, 茶葉信息, 2002.  
 陳文華, 《中華茶文化基礎知識》, 中國農業出版社 2004.  
 陳彬藩, 《中國茶文化經典》, 北京:光明日報出版社, 1999.

裘紀平著, 김봉건 역, 《다경도설》, 이른 아침, 2005

<논문>

- 姜育發, 〈秦茶史에 대한 考證學的 接近〉, 《한국차학회지》, 제8권 제3호, 2002.
- \_\_\_\_\_ 〈中國茶道 精神世界の 研究〉, 《아시아민족조형학회》, 통권 4, 2003.
- \_\_\_\_\_ 〈茶聖 陸羽의 學問과 儒學思想〉, 《한국차학회지》 제9권 제2호, 2003.
- \_\_\_\_\_ 〈차 문화와 유교〉, 《울곡학회》, 2003.
- 郭華青, 〈茶在中國佛教寺廟中的應用研究〉, 華南農業大學 碩士學位論文, 2018.
- 金明培, 〈韓國의 茶童小考〉, 《한국차학회지》 제1권 제1호, 1995.
- \_\_\_\_\_ 〈勝雪 金正喜 茶道 研究〉, 《한국차학회지》 제3권 제1호, 1997.
- \_\_\_\_\_ 〈艸衣禪師의 茶道研究〉, 《한국차학회지》 제3권 제2호, 1997.
- \_\_\_\_\_ 〈李奎報의 茶道研究〉, 《한국차학회지》 제4권 제1호, 1998.
- \_\_\_\_\_ 〈茶茶辨證說의 出典攷〉, 《한국차학회지》 제5권 제1호, 1999.
- \_\_\_\_\_ 〈百丈清規의 茶禮 研究〉, 《한국차학회지》 제6권 제1호, 2000.
- 金珍淑, 〈茶經을 통해 본 唐代 飲茶文化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_\_\_\_\_ 〈宋代 禪苑茶禮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_\_\_\_\_ 〈茶經에 나타난 唐代 製茶 工具 考察〉, 《한국차학회지》 제14권 제1호, 2008.
- \_\_\_\_\_ 〈先秦兩漢時代의 茶文化 考察〉, 《한국차학회지》 제16권 제2호, 2010.
- \_\_\_\_\_ 〈先秦兩漢時代의 茶 文化 考察〉, 《한국차학회지》 제16권 제2호, 2010.
- 甄雪燕, 〈元代宮廷飲食譜 - 飲膳正要〉, 《中國衛生人才》, 2021
- 唐俊峰, 〈洞庭碧螺春与張源‘茶泉’〉, 《天工》, 2018.
- 陶德臣, 〈中國茶業經濟史研究綜述〉, 《農業考古》, 2001.4.
- \_\_\_\_\_ 〈中國茶業經濟史研究綜述(續)〉, 《農業考古》, 2002.
- 駱祖英, 〈王楨与《王楨農書》〉, 《初中生之友》, 2002.
- 呂維新, 〈羅廩對明代茶葉科學技術的貢獻〉, 《茶葉》, 2003.
- 芦葦岸, 〈日知泉〉, 《野草》, 2021.
- 莫礪鋒, 〈寂寥長夜中的活潑詩情 - 讀杜耒‘寒夜’·趙師秀約客〉, 《文史知識》, 2020.
- 聞惟, 〈舊唐書·職官志〉編纂及史源綜考〉, 《文史》, 2022.
- 文藝, 〈梅堯臣詩歌自擬副文本研究〉, 西南大學 碩士學位論文, 2020.
- 潘斌, 〈論李觀的《周禮》詮釋〉, 《宋代文化研究》, 2016.



- 陸敏珍, <從朱子《家禮》到日用類書>, 《中山大學學報》, 2022.
- 羅宁麗, <西安碑林藏明嘉靖本‘臨川集’>, 《碑林集刊》, 2015.
- 常俊玲, <茶疏’与明代茶事美學>, 《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 2018.
- 徐貞任, <唐代 文人的 茶道觀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2008.
- 손민영, <韓國茶禮의 史的 考察>, 《한국식문화학회지》 제1보 제1호, 1990.
- 宋海景, <中國 點茶文化 發展史에 關한 研究>,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李玲, <華陽國志》歌詩謠諺之文學風貌探析>, 《河北北方學院學報》, 2021.
- 吳洋嘉, <韓國 茶禮 類型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吳元敬, <婚禮 喪祭禮中の 茶禮俗>, 《中國史研究》第22集, 2003.
- 李云姬, <艸衣禪師의 茶도관>, 《동국사상 제18호》, 1985.
- 林靜姬, <先秦兩漢魏晉南北朝時代의 飲茶文化考察>,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9.
- 王太·彭小元·辛燕·胡國明·尙巾, <武夷高處是蓬萊採取灵芽于自栽>, 《農産品市場》, 2017.
- 朱姍, <‘万歷野獲編’의史料來源与小說家筆法研究>, 北京大學碩士學位論文, 2013.
- 陳德用, <從‘全唐文’透視唐朝翻譯話語中的術語体系>, 《中國翻譯》, 2022.
- 陳昇輝, <淺析‘大觀茶論’中的美學思想>, 《福建茶葉》, 2020.
- 陳樂融, <論‘僮約’之諧趣>, 《青年文學家》, 2021.
- 鄭明道, <‘封氏聞見記·飲茶’淺注>, 《中國茶葉》, 2017.
- 鄭英善, <茶禮祭祀의 淵源과 展開 및 그 特性에 關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濟南舉行第二屆國際茶博會, 《茶葉信息》, 2002. 6.
- 채정복, <艸衣禪師의 茶禪修行論>,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崔銀河, <中國 茶詩 研究>, 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崔貞順, <中國 唐·宋代 茶文化 研究>,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黃曉琴, <茶文化的興盛及其對社會生活的影響>, 절강대학 석사학위논문, 2003.
- 許忠順, <韓國의 傳承 茶禮의 時代的 考察>,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https://baike.baidu.com/item>.
-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